





The new super powerful Note\*

# SAMSUNG Galaxy Note9

## More powerful than you think\*\*

[ 8 GB RAM  
512 GB ROM<sup>1</sup> ] [ 4000 mAh  
battery<sup>2</sup> ] [ Bluetooth  
S Pen<sup>3</sup> ] [ Intelligent  
Camera ]

\* Dibandingkan dengan seri Galaxy Note sebelumnya.  
\*\* Dibandingkan dengan seri Galaxy Note sebelumnya.

<sup>1</sup> Tersedia dalam pilihan 512GB ROM/6GB RAM dan 128GB ROM/6GB RAM. Kartu micro SD 512 GB dijual terpisah. Kapasitas ROM termasuk memori yang digunakan untuk sistem operasi dan perangkat lunak bawaan.

<sup>2</sup> Daya guna baterai tergantung dari pemakaian aplikasi, frekuensi panggilan dan pesan, jaringan provider, dan faktor lainnya. Berdasarkan hasil pengujian Strategy Analytics pada Juli 2018 di Amerika Serikat.

<sup>3</sup> S Pen sebagai pengendali jarak jauh. Penggunaan bisa digunakan hingga 10m. Performa kinerja dan daya baterai tergantung penggunaan dan keadaan.

Setelah melakukan pengisian ulang baterai S Pen selama 40 detik, S Pen bisa digunakan selama 30 menit atau diklik sebanyak 200 kali.

Customer service: Toll Free 0800-112-8888 | Telp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http://www.samsung.com/id)



Samsung Indonesia



@SamsungID



SamsungIndonesia



Samsung Indonesia

# TRANSFER FASTER

go korean

A smooth transfer makes traveling better.  
Incheon Airport's all-new Terminal 2 was designed  
with shorter walking distances and high-speed  
baggage systems to make transfers quick and easy.



GoKorean.KoreanAir.com



자카르타↔서울 S M T W T F S  
말리↔서울 S M T W T F S

Hankook Ceramic Indonesia

SAINT JAMES



# FACTORY OUTLET

## 한국교민을 위한 추석선물 특선



① 미엘 돔형소(2종/대) 4(3)pcs  
Rp 594,000 ▶ Rp 325,000



② 에슬리 돔형소(2종/대) 3(6)pcs  
Rp 462,000 ▶ Rp 260,000



③ 더로즈 밀폐용기세트 7(14)pcs  
Rp 1,738,000 ▶ Rp 767,000

아홉품종 한정하여  
한국에 계시는 친지분들께  
젠한국 본사에서  
무료 국내 배송서비스



④ 치커리 믹스세트 3(6)pcs 3.6L+원형(중)+원형(소)  
Rp 1,424,000 ▶ Rp 637,000



⑤ 치커리 2(4)pcs 2.3L+2.3L  
Rp 1,518,000 ▶ Rp 715,000



⑥ 카멜리아 1(2)pcs 3.6L  
Rp 719,000 ▶ Rp 468,000

### 무료배송 서비스

기간: 8/10~9/22

saint james 에서 루피아로 구매  
결제하시면 한국본사에서 3~4일내에  
한국내 주소지로 무료 배송 해드립니다.



⑦ 제이가든 젠국 떡볶이세트 2(4)pcs  
Rp 518,000 ▶ Rp 325,000



⑧ 스테킹 캐서롤 (pink) 6 1/2" 1(2)pcs  
Rp 295,000 ▶ Rp 156,000



⑨ 스테킹 캐서롤 (blue) 6 1/2" 1(2)pcs  
Rp 295,000 ▶ Rp 156,000

### 주문 접수처

주문시 수신자명, 연락처, 배송지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 0813-9895-9115 카톡 ID: saintjames888

이메일: event@saintjames.com

한국 / 상담문의 / +82-43-240-9900



**Anyone can be  
an inspired entrepreneur.  
ONLY IBK CAN BE THERE FOR YOU**

*IBK Partnership Banking will always be on your side  
from the very start to sustaining healthy growth of your enterprise.*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 양영연

편집인 : 전민식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전화 : (021) 521-2515, 527-2054

팩스 : (021) 526-8444

주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 <http://www.innekorean.or.id> )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 한국의 이상폭염으로

인도네시아의 평소 더위쯤은 이전 무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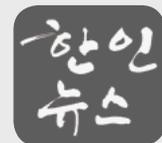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때에 따라 멋진 풍경을 제공하고,  
우리 한국인이 바바릿바바릿하게 움직이는 이유 또한  
변화에 대한 대비에 적응됐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생존의 문제에서

인간이 온도나 환경에 대해 좀더 넓게 살아낼 수 있다면  
지구상에 버려지는 지역이 줄고  
우리는 더 넓게 퍼져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외연의 확장이 요구되며

우리는 수용의 폭을 넓혀야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듯이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넓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 차례

- 8 논설위원 칼럼 - 상처받은 9월 <김문환>
- 10 신성철 칼럼 - 천개의 맛! 인도네시아 음식
- 12 편집위원 칼럼 - 기다림...그리고 30년의  
타임머신 <신돈철>
- 14 김종성의 생활법률
- 16 이해창 경제칼럼 - 동남아를 Grab한 Grab
- 18 집중! 이 사람 / 양영연 위원장
- 22 ANEKA MASAKAN KOREA - 토란국 <양소연>
- 25 Ratoh Jaroe <편집부>
- 30 배동선 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 34 월간뉴스브리핑 <자카르타경제신문>
- 40 양철성의 역할 <배동선>
- 42 자카르타 맛집탐방 - AGNEYA <주윤지>
- 46 행복에세이 - 나의 로시난테 <하연수>
- 50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인도네시아어 <박경재>
- 54 전통 공공건축 <김소영>
-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265) <이승민>
- 60 옥죄지 않아야 창의성나라가 펼쳐진다 <고승철>
- 62 화이팅! 코리아!
- 63 JIS 소식 <한영진>
- 69 생활정보

## 한인사회 이모저모

-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21
- 평화퍼레이드 26
- 지진복구 구호금 전달식 28
- 이낙연국무총리 만찬 간담회 29
- 도종환장관, 한국문화원 방문 38
- 2018 세종 문화아카데미 성료 39
- Korean Night 44
- 나주시와 MOU 45
- 규제개선 간담회 49
- MAJU SATU LANGKAH 57
- 바탐 한국문화원 소식 64
- 신흥지역연구사업단과 MOU 65



8월 5일 아시안게임 성공기원 평화퍼레이드(수디르만)  
조현영 /manzizak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IG:@dqdoodle]



## 상처받은 9월



김문환/논설위원

1962년 이래 지난 8월 18일 자카르타에서 두번째로 열린 아시안게임 개막식행사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톰 크루스’ 를 모방하는 연기를 시연하여 관중 및 시청자들에게 가벼운 웃음을 선사하는가 하면 인도네시아 전통가요인 당뒸(Dangdut) 박자에 맞춰 율동까지 선보이며 관중과 가까이하는 제스처를 펴보이던 16일간의 축제는 이제 막을 내렸다. 수카르노 대통령 재임부터 시작하여 그의 딸인 메가와띠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외교의 중재자를 자임해왔던 수카르노 가문은 이번에는 3세 정치인인 뿌안 마하라니 조정장관이 특사로 평양에 파견되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초청장을 전달하였기에 혹시나 남북정상간의 회동이 자카르타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촉각을 세워 보았지만, 남북한선수단 공동입장으로 만족하여야 했다.

아시아 스포츠 제전인 아시안게임도 9월에 접어들자마자 성화는 꺼졌고, 축포 뒤의 허탈감은 으레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심리적 현상이라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맞이하는 9월은 그 허전함의 농도가 평시와는 달라 보인다. 인도네시아 현대사의 흐름을 가장 큰 굴곡진 역사로 바꿔 놓은 9.30 사태의 후유증과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동남아지역에 전염병처럼 번지던 ‘공산화’의 기운은 인도네시아에도 스며들어 결국 쿠데타사건으로 분출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 우익군부는 곧 이어 공산당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보복행위에 들어간다. 공산당세력과 대칭점에 서있던 그들과 이슬람세력은 공동운명체적 연대로 결속되어, 즉각 ‘공산당 정풍운동’ 이라는 광풍을 몰고 자바, 마두라, 발리, 그리고 수마트라 일부 지역을 휩쓸게 된다. 1966년까지 자행된 이 정풍운동에 무려 ‘40만에서 2백만명’의 희생자란 숫자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민족적 재앙임에는 틀림없었던 것 같다. 실제로 9.30 사태로 야기된 인권문제는 수하르토 집권기간 중에는 언급자체가 터부시되어 왔으며, 그 어느 누구도 공론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하였던 민감한 사안이었다. 구스 두르 대통령 이후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서야 자연스럽게 민낫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니. 그 영향이랄까? 한국의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는 학위논문, 또는 학술대회가 가끔 눈에 띄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매년 9월만 되면 후유증에 시달리던 암울한 사회분위기를 떨쳐버리고 이번 아시안 게임을 응원하던 단결된 모습으로 사회통합을 더욱 돈독히 하는 이미지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해 본다. 인도와 자주 혼동하던 외국인들에게 이제 인도네시아는 인두스(인도)와 네소스(섬)가 합성된 국가명임을 확실히 구분 시킬 것이며 곧 도심지역 전철이 개통되고 깔끔한 도시미화와 더불어 인천 공항에 버금가는 국제공항이 도처에 건설되는 역동적인 환경으로 변모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신남방정책’이 수시로 화두에 오르는 고국의 학계에서도 인도, 베트남과 더불어 그 핵심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를 놓고 예사롭지 않게 다루는 추세이며, 특히 양국간의 특별한 인연을 찾기 위해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사들도 그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 8월 중순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열린 ‘해외독립운동영화제’가 그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 연극영화계의 원조라고 하는 조선인 허영에 관한 일대기 조명과 더불어 그가 1950년에 자카르타에서 제작,감독한 ‘프리다(Frieda)’라는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다. 독립전쟁 이후 최초로 제작된 영화로서의 역사성만 해도 간과할 수 없는 족적이긴 한데, 해설부분에 들어가선 오류로 점철되어 지는 진행을 보고는 다소 아쉬운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허영에 관한 영화제를 뒤로하고 자카르타에 들어오자마자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의 ‘한국인 투사’라고 묘사되어 온 포로감시원 출신 잔류자(태평양전쟁)인 양칠성에 관한 세미나가 현지학계 주관으로 열렸다는 소식을 접하였으며 한국의 모 지상파방송에서는 비슷한 주제로 현지촬영에 열중하고 있었다.

타국에 비해 교류역사가 짧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학문적인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는 필자는 15년 전부터 이 분야 조사활동을 시작한 장본인으로서 뿌듯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다. 상기 언급한 인도네시아 인권문제에서부터 문화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허영, 인도네시아의 독립전쟁의 투사였던 양칠성을 연구하는 학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양국관계 발전에 탄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

## “천 개의 맛! 인도네시아 음식”

글 :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인도네시아에 가는데 맛있는 음식 좀 소개해 주세요.”  
사뎐 캄빙(sate kambing), 나시 고렝(nasi goreng), 미 고렝(mie goreng), 소또 아얌(soto ayam), 캉꿍 뚜미스(kangkung tumis), 가도가도(gado-gado), 부부르 아얌(bubur ayam), 솅 분똥 이가사삐(sop buntut iga sapi), 이칸 바까르(ikan bakar), 나시 우둑(nasi wuduk), 른당(rendang)…. 수많은 인도네시아 음식이 머리 속을 스친다.



학교를 갓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내 모습과 비교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다. 바나나, 삶은 계란과 빵 등으로 인도네시아 정착 초기를 버텼던 한국인 청년은 이제 해장국으로 노란 국물의 소또 아얌 보고르(soto ayam Bogor)나 빨간 국물의 톰 양 쿵(tom yam kung)을 찾는 중년이 됐다.

인도네시아는 동서양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네덜란드, 영국, 포르투갈, 아랍, 인도, 중국, 일본, 오세아니아 등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음식이 전해졌다. 향신료의 천국이자 전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종을 가진 나라라는 명성에 걸맞게 인도네시아는 향신료부터 해산물과 과일에 이르기까지 식재료가 풍부하다. 외래문화에 대한 벽이 낮은 인도네시아인들은 다른 나라 음식을 자국의 식재료를 활용해 토착화시키면서 천 개의 맛을 빚어냈다.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만난 음식은 사뎐, 나시고렝, 미고렝, 가도가도, 소또아얌 등이다. 인도네시아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사뎐은 닭

고기나 염소고기를 대나무 꼬치에 끼워서 야자로 만든 숯불에 구운 후 땅콩소스나 간장소스를 찍어서 먹는 음식이다. 사뎐은 중동의 시시(shisi)라는 음식을 연상시킨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인도네시아 음식의 하나인 나시고렝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인도네시아 식재료들이 첨가되면서 다양하게 변모했다. 자바 섬에서는 잘게 썬 닭고기, 간장, 고추, 꼬미리(kemiri), 야자유, 튀긴 샬롯(bawang merah) 등을 첨가한다. 염소고기를 사용할 경우 염소고기에 카르다몬(cardamom), 육두구, 정향 등의 향신료를 첨가한 후 버터의 일종인 기(ghee)에 볶아서 밥을 더하므로 중동음식 같은 풍미가 난다.

채식주의자라면 가도가도(gado-gado)나 까레독(karedok)을 권한다. 가도가도는 살짝 익힌 채소와 팥, 까레독은 생채소에 땅콩소스를 뿌려서 먹는다. 땅콩소스에 향이 강한 채소인 바질을 첨가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경우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린다.

소또는 인도네시아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고기국의 일종으로 지역에 따라 양념이 달라진다. 따라서 소또 아얌 따우쥬(tauco)나 소또 아얌 보고르처럼 소또 뒤에 재료나 지역명이 붙는다. 고기는 다양한 고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닭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또 아얌이라는 이름이 흔하다. 중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인 자바섬 북부해안 지역인 빠갈롱안에서 소또를 만들 때 대두를 발효한 장류의 하나인 따우쥬(tauco)를 넣어서 이름도 소또 따우쥬라 부른다. 따우쥬는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국에 넣는 장으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음식에도 많이 사용된다. 중부 자바의 꾸두스 지역에서는 간장으로 양념을 해 소또의 색이 갈색이다. 서부 자바의 보고르 지방과 동부 자바의 라몽안 지방의 소또는 강황 맛이 나는 노란색 국물이 특징이다.

수마트라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인도와 아랍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서부 수마트라의 빠당음식은 야자수와 카레를 기본 양념으로 사용해 매콤하면서도 감칠 맛 때문에 한국인들이 좋아한다. 특히 큰 당은 소고기를 다양한 향신료와 함께 여러 시간 익힌 조림으로 부드러운 육질과 함께 풍부한 맛이 일품이다. 아찌 음식은 빠당, 아랍, 인도 등 음식이 섞인 느낌이 더 강하다. 아찌식 빵 카나이(canai)는 인도나 아랍 지역의 빵처럼 납작한 모양인데 닭고기 카레나 양고기 스투(stew)와 함께 먹는다.

지금의 자카르타 지역을 의미하는 브따위(Betawi) 지역은 항구도시답게 다양한 문화가 섞였다. 브따위 음식은 중국식 조리법, 인도네시아 식 재료, 서양식 상차림과 인테리어가 섞인 퓨전음식으로, 현재 인도네시아 전통음식을 파는 중상층 식당을 대표한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는 비슷한 스타일의 음식을 빠라낙칸(peranakan) 음식이라고 한다.



힌두교가 주류인 발리 섬은 돼지를 통으로 구운 바비 굴링(Babi Guling)이 유명하고, 기독교 지역인 꾸빵에는 훈제 돼지고기 세이(sei)가 있다. 네덜란드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음식은 비스틱자와(bistik Jawa)로 바왕메라와 산판, 육두구 등 인도네시아 고유의 향신료를 추가해 서양식 스테이크와 소스를 차별화시켰다. 또 중부 자바에는 비스틱자와와 더불어 인도네시아화된 갈란틴(galantine)도 있다. 갈란틴은 육류나 어류의 고기만 삶아서 차게 굳힌 음식으로 고급 뷔페에서 많이 나오는 음식이다. 또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식민지를 오래했던 인도네시아 동부지역은 빵과 쿠키가 발달했다. 북부 술라웨시 지역인 미나하사 지방에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유래한 박쥐 요리인 빠니끼(paniki)가 있다.

인도네시아 음식전문가 윌리엄 왕소 씨는 최근 일간지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두를 발효시켜서 만든 템페(tempe)를 제외하면, 인도네시아에서 기원하는 음식이 없다고 할 만큼 인도네시아 음식은 고유의 음식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된 음식이 문화적 변용과 동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했다”라고 설명했다.

자카르타 쇼핑몰이나 대형빌딩에 가면 빠당이나 빠칸바루까지 가지 않아도 인도네시아 전역의 음식을 맛 볼 수 있다. 이슬람신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지만 중국과 힌두교 영향으로 돼지고기도 흔하게 먹을 수 있다. 지역으로 가면 박쥐고기, 개고기, 거북이, 코브라 요리 등 혐오식품까지도 먹을 수 있다.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토착농산물 등을 알면 그 지역의 음식에 호기심이 생기고 낯설지만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음식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익숙해지고 즐길 수 있게 된다. 음식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좀더 깊이 보니, 천 개의 인도네시아가 보인다.



## 기다림.. 그리고 30년의 타임머신

글: 편집위원 신돈철

“여권 챙겼지? ...비행기 티켓은? 우리 공항 패션은 커플티야. 내 얼굴 어때?” 한꺼번에 쏟아내는 질문에 나는 허둥대며 여행가방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나를 재촉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퍽이나 들뜬 듯하다. 결혼후 1년만에 작심을 하고 떠나는 여행이니 그럴만 했다. 1년동안 갇돈 붓듯 적금을 부어 탄 돈을 9박 10일 일정으로 유럽여행을 떠나려 하는 것이다. 유럽이랄 것도 없다.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를 여행하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그 여행지에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꿈꾸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회사를 다니던 시절, 년 월차를 다써서 가는 여행길은 지금 생각해 보면 다소 무리한 계획이기도 했다. 당시 변변치 못한 신혼 살림살이를 하고 있었던 터라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만 했던 시절 우리 부부는 철없이 거금을 들여 10일간의 여행을 계획했으니 어르신들이 아신다면 불호령이 떨어졌음에 틀림 없었다.

우리는 코드가 맞았다. 그런 무리수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 자유로운 신혼초에 이런 여행을 못간다면 아이낳고 교육하느라 더욱 더 어려운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당시에는 러시아를 가로지르는 항로가 없었던 관계로 홍콩을 들러 중동지역을 거쳐 장장 25시간을 날라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를 타본 경험도 많지 않았던 터라 기내에서

먹고 자고를 반복하는게 꽤 힘들었지만 막상 영국에 도착하니 스물 스물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눈앞에 이상한 풍경이 보였다. 건물들의 3분의 1정도만이 꼭대기부터 하얗고 아랫부분은 시커먼 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군가가 건물에 색칠을 한 듯한 느낌이었다. 이유인즉슨 소위 건물 청소를 하는 중이라 했다. 영국은 비가 많이 내려 건물들이 대부분 석조 건물로 이뤄져 이끼가 많이 끼서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한없이 어두운 색으로 변한다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물들이 운치있게 보였는데 다른 면에서는 불편함으로 다가오는가 보다.

일정중엔 학창시절 교수님이 졸업하셨다고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RCA (Royal Collage of Art : 영국 왕립 예술대학교)의 방문이 있었다. 영국을 간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예술 대학교 였다. 때 마침 학교에서는 졸업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전시장을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만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작품들을 하나 하나 볼 때마다 가슴이 여미듯이 아파오는 감정이 있었다. 왜 일까? 아마 그들이 선보인 작품의 수준에 놀랐던 것이었을 것이다. 나를 자부심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했던 나의 치기어린 자존심에 상처가 난듯했다. 우물안 개구리 감정이랄까.. 나는 전시장을 다 둘러보고 나오다 근처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아내에게 얘기했다.

“우리 나중에 아이 낳으면 이 학교에 꼭 보내자” 라고..

실제 영국 왕실 사람들이 거주하는 원저성을 보고 중세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고 영국 상류층 학생들이 다닌다는 이튼스쿨을 보고 옥스포드나 스탠포드를 가기위한 엘리트코스의 위엄을 느꼈다. 그리고 너무 방대해서 결국 다 보지 못했지만 대영박물관이 소장한 우수한 예술작품들에 눈을 떼지 못했던 그 순간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기만 하다. 세계최초로 만들어진 낡고 오래된 지하철을 지금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런던 사람들을 보고 전통을 중요시하는 대영제국의 시민의식이 어느 수준인지 가늠하게 해주었다.

“여권챙겼지?... 비행기 티켓은? 우리 공항 패션은 핑크색이야..” 아내의 여행 준비는 수십년이 지난 올해도 변함없는 말투다. 우리는 그렇게 또 다른 설렘으로 영국 여행 길에 올랐다. 이번 여행길은 남다른 감회가 있는 우리 부부의 추억 여행이다. 신혼초에 갔었던 영국왕립학교 RCA의 졸업 전시회를 30년 만에 다시 한번 방문하는 것인데 그 전시회의 한 코너에서 딸 아이의 작품을 감상하게 될 줄이야.. 그렇다... 30년전 우리 부부가 품었던 꿈이 현실이 되어 같은 공간에서 과거와 마주하고 있는 순간이었다.

내 눈에, 내 시야에 들어온 딸 아이의 작품들 속에는 따뜻한 빛이 흘러 나왔다. 어떻게 그 가녀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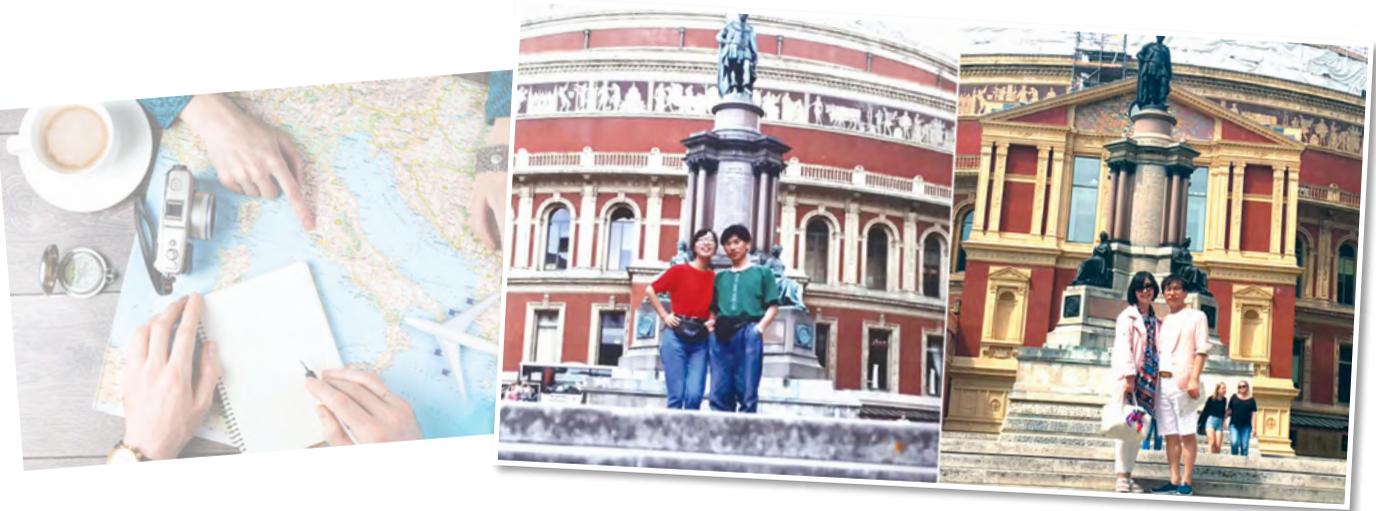
몸에서 저렇게 대담한 붓터치가 자신감있게 표출돼 나올까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딸 아이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겪었을 창작의 고통과 인내의 순간들이 작품 하나 하나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다. 우리 부부는 벽찬 감동으로 눈시울이 뜨거워 졌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가졌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다. 대학과 대학원을 영국으로 보내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기에 더 더욱 그랬다. 그러나 그 모든것을 극복하고 오늘 긴 세월동안 소중하게 꿈꿨던 소망이 현실이 되어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딸 아이의 작품들은 한없는 행복의 카메라 셔터 속으로 우릴 끌어 들였다.

로얄 알버트홀은 우리가 신혼초에 품잡고 사진을 찍으며 “우리 아이 낳으면 이곳에 꼭 유학 보내자” 라며 우리의 소망을 품었던 자리이다. RCA를 돌아 나오면 자연스럽게 들어서게 되는 그곳에 우리 부부는 3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다. ‘꿈은 이루어 진다’ 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바로 그 같은 자리에서 품잡고 사진 찍으며 또 다른 미래의 소망을 품어 본다.

“이 만큼의 시간이 또 흘러도 우리 부부 건강하게 손잡고 다시한번 꼭 이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 "미성년자 및 공공장소에서 음주관련 처벌규정" Pelarangan minuman keras di Tempat Umum dan Dibawah Umur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거주하는 최 엄마입니다. 어제 제 아들과 친구 3 명이 인도네시아를 관광으로 방문하여 친구들과 함께 맥주 및 와인을 호텔 근처 도로 벤치에서 앉아서 마시다가 순찰중인 경찰에 적발되어서 체포후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 아들은 20살이며 친구들도 비슷한 나이라고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성인이 도로가 벤치에서 맥주를 마셔도 처벌을 받나요?

Q A : 안녕하세요 최 어머니, 도로는 공공장소의 범주에 해당되며 도로가 벤치에서 음주 행위는 인도네시아 형법 제 536조 (Pasal 536 KUHP)에 의거 처벌대상이며 벌금 또는 최고 3일의 구류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한 재범에 대하여는 최고 2주 구류형, 3범에 대하여는 최고 3개월의 구류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Pasal 536 KUHP :

1. Barang siapa nyata mabuk ada dijalan umum, dihukum denda sebanyak-banyaknya Rp. 2,500,000- (Berdasarkan penyesuaian denda KUHP)
2. Jika pada waktu melakukan pelanggaran itu belum satu tahun, sejak ketetapan hukum yang dahulu bagi si tersalah lantaran pelanggaran serupa itu juga atau pelanggaran yang ditsangkakan dalam pasal 492, maka hukuman denda itu dapat diganti dengan hukuman kurungan selama-lamanya tiga hari.
3. Kalau pelanggaran itu diulangi untuk kedua kalinya dalam satu tahun sesudah keputusan hukuman yang pertama karena ulangan pelanggaran itu, maka dijatuhkan hukuman kurungan selama-lamanya dua minggu.



Q

4. Kalau pelanggaran itu diulangi untuk ketiga kalinya atau selanjutnya di dalam satu tahun sesudah ketetapan putusan hukuman yang kemudian sekali lantaran ulangan pelanggaran untuk kedua kalinya atau selanjutnya, maka dijatuhkan hukuman kurungan selama-lamanya tiga bulan.

만약 공공 장소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는 행위 등 공질서를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형법 제 492조 (Pasal 492 KUHP)에 의하여 벌금 또는 최고 6일의 구류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김 아빠이며 제 딸은 국제학교 고등학생 2학년 이며 현재 16살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교내 학생 클럽 친선 행사를 시내 클럽에서 밤 10시에 개최 하였으며 선후배 회원 10명과 행사 도중 선배로부터 와인을 강요 받아서 마신 후 쓰러져서 가까운 제 딸 친구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급히 찾아가서 쓰러진 딸을 데려와 병원에 입원 시켰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클럽 사장 및 제 딸에게 알콜 14% 와인을 마시도록 강요한 선배를 처벌할 수 없나요?

A : 안녕하세요 김 아버지, 인도네시아 형법 제 538조 (Pasal 538 KUHP)에 17살 미만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벌금형 또는 최고 구류 3개월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따님에게 와인을 마시도록 강요한 학교 선배는 형법 제 300조 (Pasal 300 KUHP)에 의거 벌금형 또는 최고 1년 징역형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Tips.** 음주 관련 처벌 규정은 상기에서 언급한 형법 제 300조, 492조, 536조, 53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공공행사에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비치한 행사 위원도 형법 539조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는 마약법 [UU No.35 tahun 2009 (UU Narkotika)]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Law Firm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A



[산업생태계의 변화-공유경제]

## 동남아를 Grab(움켜잡은)한 Grab

글: 이해창 (신한은행 전무)

올해 상반기 동남아시아에는 단일기간 최대규모의 이직이 벌어졌다. 세계 최대 차량공유기업인 우버가 동남아시아 사업을 포기하며 동남아시아를 현지 경쟁 기업인 그랩에 넘김에 따라 240만 명이 넘는 동남아 우버 기사가 갑자기 소속을 옮길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대신 우버는 그랩 지분 27.5%를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러한 빅딜로 인해 그랩은 동남아 주요 국가의 차량공유와 택시 시장을 장악한 독점 기업으로 거듭 났으며 기사와 승객 수익명이 인센티브와 할인 혜택 축소, 택시비 상승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음에도 독점의 부작용을 막아야 할 각국의 해당기관은 두 거대 기업의 결정에 별 다른 손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아시아는 차량공유 시장이 2025년까지 지금의

네 배 규모인 200억달러로 커질것이란 예측과 함께 차량공유 시장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랩이 우버와 손잡게 되며 토종기업인 고젝과의 정면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렇듯 전 세계에 공유경제 바람이 뜨겁다. 앞서 언급했던 차량공유 1위 기업 우버는 조직내 성희롱 및 자율주행차 사고 등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택시 한대 없이 이미 기업가치가 600억달러에 이르며 BMW를 뛰어 넘었으며 에어비앤비는 숙박공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 세계에 호텔 한 채 없이 힐튼의 기업가치를 앞지른 상황이다. 이른바, 소유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접근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던 세계적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의 주장이 불과 10여년 만에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현실이 되어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인간의 자동차에 대한 애정과 뿌리 깊은 로망을 생각할 때, 과연 차량도 무소유의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필자 또한 얼마전까지 답을 선뜻 내놓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100년간 자동차는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소유욕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자의 고정관념을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비웃기라도 하듯 (자가용 보유 대수를 줄여 교통체증이나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줄인다는 공유경제의 철학을 차치하고라도) 보험료, 유지비, 주차비 등을 고려해 볼 때 더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기보단 필요할 때 잠시 이동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겠다는 소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우버, 그랩을 비롯한 후발주자인 리프트의 계속되는 상승세를 볼 때 이런 현상이 쉽게 수그러들거나 다시 역행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유를 마시기 위해 젖소를 구매하지 않는 것처럼 미래에는 이동을 원한다고 더이상 차량을 소유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기존 택시업계는 우버와 그랩이 저가 경쟁을 벌이는 사이 초토화됐다. 독점 우려가 확산되자 싱가포르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경쟁 당국은 그랩과 우버의 통합이 경쟁법에 저촉되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통상적으로 독점이나 과점으로 시장이 바뀔 수 있는 기업 간 M&A는 각국 경쟁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사는 통합이 아닌 우버가 동남아 대부분 지역에서 서비스를 중단해 버리는 방안을 선택하면서 각국의 승인 심사는 무의미해졌으며 그러한 사이 그랩의 독점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럼에도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는 우리나라의 공정위와 같은 독과점 및 부당경쟁을 감시할 만한 기관의 경험이 짧을 뿐 아니라 참고할 만한 선례 또한 많지가 않다. 때문에 그랩과 우버처럼 합병하지 않고

한쪽이 비즈니스를 포기함과 동시에 직원이 이동하는 등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흡수와 함께 소수지분(30% 이하)를 부여하는 방식의 편법 M&A를 해도 경험이 없는 관련당국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3년 전 아마존의 창립자 베조스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할 당시 모든 투자자들의 첫 질문은 “그런데 인터넷이 뭔가요?” 였다. 그러나 지금 전세계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은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이며 모든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플랫폼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게 되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은 빙하기 이후의 지구 변화만큼이나 기업생태계를 변화시켰으며 이들 모두의 핵심가치는 디지털 플랫폼인 것이다.

필자 또한 삐삐(페이저)로 수신된 번호로 전화하기 위해 또는 음성메세지를 남기거나 확인하기 위해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길게 줄을 섰던 것이 불과 이십여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그 사이 모두의 손에는 삐삐 대신 흑백핸드폰을 지나 컬러액정폰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다. 요즘 초등학교 대부분이 공중전화박스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닐 만큼 현대인들은 생활방식의 빠른 변화를 체험하고 있으며, 정말 10년 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 이제는 ‘팩트’가 되었다. 때문에 또 다시 20년 후에는 ‘옛날에는 정말 각자 차를 사서 타고 다녔나요?’ 라는 질문을 그 때의 아이들에게 받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





## 2018 아시안게임 지원 민관합동위원회 양영연 위원장



“역시 대~한민국!!”

한인뉴스 편집팀은 8월 28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기간 중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아시안게임 지원 민관위합동위원회(이하 민관합동위) 양영연위원장(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을 만났다.

### 1. 민관합동위가 지난 7월4일 출범한 이래로 손님맞이 준비에 바쁘셨을텐데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시안 게임의 성공을 위해 한인사회의 지원 활동은 인도네시아에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선수단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준비 상황이 맘을 놓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현지에서 사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으므로 오히려 뜻을 모으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웃음)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장 나름의 고충도 있으실텐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 평화퍼레이드

8월 5일 수디르만 거리를 한인동포와 인도네시아인들이 함께 행진하는 행사로 우리에게서 아시안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선수단은 물론이고 개·폐회식 남북한 선수들의 공동

입장단일팀의 3종목(여자농구, 카누, 조정) 경기 출전 등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를 인도네시아에 확산시키고자 우리 한인동포가 하나된 의지를 보여주고 인도네시아내에도 홍보를 하기위해서 기획했습니다.

- 개최식

오토바이를 타고 입장한 조코위 대통령이 이슈가 되었지만 이 나라 특유의 종합선물샐트같은 큰 스케일과 연신 터지는 불꽃놀이가 볼 만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준비한 대형 한반도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주최측의 불허로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각종 환영식

공항에서 8월 15일을 정점으로 대거 입국한 대한민국 선수단과 임원진 환영을 비롯한 경기출전 선수들과 관계자들과의 만찬 및 크고 작은 모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경기 관람

입장권의 구입문제와 여러 지역을 다니며 경기를 응원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서 붉은 티를 입고 자리를 매우고, 어김없이 귀를 때리는 팽가리 소리와 응원단의 대~한민국! 를 소리치는 동포들과



현지인들의 모습은 언제봐도 참 뿌듯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 이낙연 총리와의 동포간담회

이번 이 총리 방문으로 조코위대통령과 4번이나 자리를 함께 할 만큼 두 나라가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개막식 전에는 리용남 북한 내각 부총리와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인도네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포간담회는 시종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기에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 각종 매체 인터뷰 취재기자단과의 만남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이번 기회로 바로고 좋은 이미지를 심고자 열심히 임했습니다. 한국과의 시간차로 새벽부터 대기해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횡수가 거듭되면서 제법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TV 보다는 라디오 쪽이 훨씬 긴장은 덜 되던걸요~(웃음)

**2.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해주세요.**

가장 애를 먹었던 것은 역시나 경기입장권 구매였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INASGOC)가 발표한 바로는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티켓은 아시안게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가능하고, 발권관리는 파트너사인 'Kios Tix'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알파마트 및 다수의 쇼핑몰 내 팝업스토어는 물론 게임기간 중에는 경기장에 설치된 박스오피스를 통해 손쉽게 구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정은 너무나 판이했습니다.

공식 온라인 티켓판매 웹사이트가 전산장애로 결국 폐쇄, 중도에 bibli.com으로 변경되는가 하면,



‘Kios Tix’ 공식 판매점의 방문구입 역시 운영 미숙과 발권시스템 등의 문제로 허탕치기 일쑤였고, 오프라인 판매처 알파마트 및 팝업스토어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의 티켓 판매처는 수시로 바뀌고 안내조차 미숙하여 엉뚱한 줄에서 시간만 낭비 후 되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E-Voucher를 가지고 경기입장권으로 이중 교환해야하는 불편한 번거로움까지... 그야말로 답답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시스템 개선 등으로 나아진 모습도 보였으나 TV시청 중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3분의 2이상의 빈 좌석을 ‘입장권 매진’으로 일축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실례로 티켓을 구하지 못한 교민 상당수가 현장 구매를 시도하다가 결국엔 실패하고 뒤돌아간 사례가 빈번했는데 경기장내 관중석은 텅 빈 상황이었으니 구매자 입장에서선 어이상실이겠으며, 그 경기를 시청하는 분들도 국제대회에 걸맞지 않은 관중규모에 실망감이 대단히 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채운 우리 동포들의 열띤 응원만큼은 단연 최고였고 경기결과에 상관없이 경기장을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 3. 인상에 남는 경기는?

지난 27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축구경기는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시청하신 분들도 그랬겠지만 경기장에서 마음을 줄이며 응원단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응원했습니다.

쉬지 않고 응원한 초등학교아이들의 대~한민국이 아직도 들리는 듯 합니다.

### 4. 한인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 모양으로 마음을 모아 후원해 주신 한인 기업 및 동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의 후원에 감동했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의 저력이 충분히 드러났던 행사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일시 : 2018.8.15 주관 :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 제 73주년 광복절 경축식



제 73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8월 15일 대사관 강당에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주최로 열렸다.

한인사회 주요인사 및 각계각층의 한인동포,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김창범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대독한데 이어 광복절의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했다.

김창범대사는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이다.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더한 효과이다.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면서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 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

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통일의 그날에 대한 희망을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이겨낸다면 우리는 역사에 자랑스런 조상으로 후손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하고 인도네시아와 함께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이 되기 위한 손님맞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인사회가 하나 된 모습으로 관심과 지원을 하는 것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8월5일 롬복 지진 피해성금모금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어 배상경 한인회 명예고문의 선창으로 ‘대한민국만세’를 부르고 경축식은 마무리됐다.





## 토란국 Sup Talas

글: 양소연 (전 KBS World Radio 방송작가)

한인뉴스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달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9월에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에 있는 달입니다. 추석 연휴는 9월의 마지막 주이지만 월 초부터 추석을 준비하느라 바쁜 모습입니다. 미리 기차표나 버스표를 예매하고 오랜만에 뿔 가족 친지들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거나 몇 일 전부터 차례상 준비로 바쁜 주부들의 모습은 추석이 얼마나 큰 명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인도네시아의 큰 명절 Idul Fitri 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고향에 내려가는 길이 평소보다 많이 막혀도, 음식 준비하느라 피곤해도, 오랜만에 만날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기분이 들뜨는 그 분위기 말입니다.

금식을 하고 빈속에 처음 먹는 음식이 달달하게 조린 대추야자나 설탕을 듬뿍 넣은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이는 하루종일 비어있던 위를 깨워 원활한 소화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Aneka Masakan Korea>에서 소개해 드릴 음식 역시 위와 장을 보호하고 소화에 도움을 주는 음식. 바로 토란국입니다,

토란에 함유되어있는 뮤틴 성분이 위를 보호하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예로부터 추석에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토란국을 먹었습니다. 추석 음식이 대부분 고단백, 고지방, 고열량 음식이라 배탈이 나기 쉬운데 토란국으로 위와 장을 보호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음식 토란국을 만들 재료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Bahan-bahan**

Talas 300g

Lobak 200g

Daging sapi bagian sengkak atau brisket 200g

Rumput laut atau Dasima sedikit

Daun bawang 1 buah

Bawang putih yang dicincang 1 sendok makan

Kecap asin dan garam sedikit

## **Untuk saus perendam:**

Kecap asin 1 sendok makan

Bawang putih yang dicincang halus dan minyak wijen 1 sendok makan

Garam 2 sendok teh

Merica sedikit

## **Cara memasak**

1. Daging sapi bagian sengkak atau brisket direndam dalam air dingin dahulu sekitar 2~3 jam, untuk mengeluarkan sisa darahnya

소고기는 양지나 사태를 준비하여 물에 2~3시간 정도 담귀 핏물을 뺀다.

2. Siapkan panci besar untuk membuat kuah atau kaldu, didihkan air lalu masukkan daging dan daun bawang yang dipotong panjang-panjang

육수를 넉 큰 냄비를 준비하고 핏물을 뺀 소고기와 길게 썬 파를 넣고 물을 충분히 부어 끓여줍니다.

3. Setelah dagingnya matang, masukkan dasima atau rumput laut lalu didihkan lagi dengan api sedang

고기가 익고 육수가 충분히 우려낸 후 다시마를 넣고 중불에 끓여줍니다.

4. Biarkan kuah mendidih sekitar 5 menit, lalu matikan api dan angkat dasima atau rumput laut, daun bawang dan daging

육수를 5분정도 끓인 후 불을 끄고 다시마와 파, 고기를 건져냅니다.

5. Rumput laut diiris panjang-panjang seperti korek api dan menyuwir atau mengiris menurut tekstur daging sapi dengan ukuran sesuai selera Adna.

다시마는 채 썰고 육수를 낸 고기는 먹기 좋게 자르거나 찢어서 줍니다.

6. Campurkan semua saus perendam. Kemudian masukkan irisan daging

양념장을 만들고 준비해 둔 고기를 넣어 잘 섞어 잠시 재워둡니다.

7. Rendam talas ke dalam air yang dicampurkan dengan cuka.

토란은 식촛물에 담귀둡니다.

8. Talas direbus sebentar dengan air yang dicampurkan dengan garam. 팔팔 끓는 소금물에 토란을 적당히 삶아줍니다.
9. Angkat talas lalu tiris dengan air dingin, Kemudian kupas kulit talas 토란이 완전히 익기 전에 건져내고 찬물로 행궤준 후 껍질을 깍니다.
10. Irislah lobak dengan ukuran sesuai dengan dasima atau rumput laut 무는 다시마와 같은 크기로 채 썰어 줍니다.
11. Didihkan lagi kuahnya dengan lobak, dan talas. Biarkan sebentar sampai talasnya matang 육수에 무와 토란을 넣고 토란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12. Masukkan daging dan dasima atau rumput laut 끓고있는 육수에 양념에 재워둔 소고기와 다시마를 넣어줍니다.
13. Tambahkan garam, kecap asin dan bawang putih yang dicincang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다진 마늘도 넣어 줍니다.

Dasima adalah salah satu hasil laut dan sering digunakan untuk membuat kaldu. Untuk membuat sup talas yang lebih enak, jangan merebus talas terlalu empuk. Kalau tidak, talas itu akan hancur di dalam sup. Dan jangan lupa memakai sarung tangan plastik pada waktu membersihkan talas. Kalau tidak, Anda bias menderita alergi kulit menjadi gatal.

Apakah Anda suka talas? Sup talas ini merupakan salah satu masakan khusus Chu Seok yang berasal dari daerah Seoul dan Kyunggi. Masakan ini sangat digemari oleh masyarakat Korea karena rasanya yang enak dan kandungan zatnya juga sangat berguna bagi tubuh.

Saya Yang So Yeon akan menjumpai Anda lagi edisi bulan depan. Selamat mencoba. Terima kasih.

### Kosakata Edisi bulan ini

1. **Sengkel** : 사태 ☞ Daging sapi bagian sengkel cocok untuk membuat sup 사태는 국거리로 알맞다
2. **kuah** : 국물 ☞ Tolong tambah kuah 국물을 좀 더 주세요
3. **kaldu** : 육수 ☞ Kuah ini enak sekali karena menggunakan kaldu sayur 이 국물은 채소육수를 사용해 더 맛있다
4. **gatal** : 간지럽다 ☞ Pipi saya gatal karena digigit oleh nyamuk 내 뺨에 모기가 물어서 간지러워

## 개막식 화제.. 'Ratoh Jaroe'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첫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한 5분간의 개막식 집단 무용이 인도네시아 국내외에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환영의 춤]으로 소개된 집단 무용은 'Ratoh Jaroe' 라는 아체 무용이 그 후 자카르타에서 발전되었고 짝수의 여성 무용가들이 제 자리에 앉아 북소리에 맞추어 팔과 손만으로 춤을 추는데 각종 종교 및 일반 중요 행사에서 많이 공연되고 있다.

이날 'Ratoh Jaroe' 는 엄격한 오디션을 통과한 자카르타 18개 여고생 1600여명으로 구성 되어 개막 5 개월 전부터 지역별 연습에 들어가 개막 3주전부터 봉카르로 무대에서 정식으로 연습하였다고 한다.

단연 화제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재빠르게 의상을 교체하여 화려한 의상 색션을 연출하였는지 감탄을 자아냈다. 무용수에 따르면 총 6벌의 색색 의상이 준비 되었는데 교체가 아니고 겹옷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행사 준비 몇 시간 전부터 무겁고 두꺼운 옷을 입고 대기하여 무척 덥고 힘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의 아시아 대형 행사에 개막식 요원으로 참가하여 너무 기뻐고 많은 친구들과 사귀어 평생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고 하며 개막식이 끝난 후 무대 뒤에서 친구들과 그간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며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트렸다고 밝혔다.

Assalamu' alaikum kami ucapkan para undangan 🎵~ 로 시작되는 바하사 노래 가사는 '금번 행사에 참가하신 모든 선수, 손님,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에 이어 후렴부는 아체어로 부르는데 그 뜻은 '아체에서 많이 피는 Bunga Kantil은 색색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 납니다. 그 꽃의 향기가 너무 좋고 전체 멀리 멀리 그 향기가 퍼져 나간답니다. 그 진한 그윽한 향기 함께 느끼시고 당신과 그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라는 가사로 근엄하고 웬지 구슬픈 가락에 맞추어 불리어졌다.

'Ratoh Jaroe' 유튜브 동영상은 개막 당일 100만 뷰를 돌파하였고 현재 5.5백만 뷰에 국내 및 해외 인니 동포들로부터 찬사의 리플이 수천개씩 달려 있으며 조국과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잠시 시간 내어 유튜브 'Ratoh Jaroe - Asian Game' 을 감상하시면 묘하게 그 멜로디에 매료 당할 것입니다.

- 편집부 -



## 아시안게임 성공과 남북 단일팀 출전을 축하하는 평화 퍼레이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가 주최하고 민주평통 자문회의 동남아 남부협의회(인도네시아)가 주관한 남북한 단일팀을 축하하는 평화퍼레이드가 8월 5일 (일) 아침 SUDIRMAN 거리에서 펼쳐졌다.

이번 걷기 행사에는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한인 동포들과 인도네시아인들이 함께 Sudirman 도로를 걸으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성공과 남북한 단일팀의 출전 축하하는 평화의 행진이었다.





행사 홍보 초기에 남북한 대사와 북한동포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였으나 아쉽게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인회 양영연 회장은 개회사에서 “아시아안게임으로 한 걸음 다가선 한반도의 평화통일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의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기획됐다”고 말했다.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는 “이 평화의 퍼레이드를 통해 주변의 인도네시아인과 함께 남북한 단일팀을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는 한국문화원(원장 천영평)에서 선발된 50명의 코리아서포터즈의 발대식을 가졌다. 특별공연으로 K-POP 커버댄스그룹, 아이돌 그룹 헤일로와 4인조 관악연주단의 관객과 호흡하는 열정적인 무대가 있었다.

참가한 한인동포와 인도네시아인들은 나눠 준 한반도 티셔츠를 입고 한반도기를 흔들며 한바패사 물놀이의 흥겨운 장단에 맞춰 차 없는 Sudirman 거리를 걸으며 휴일 아침을 보냈다.



## 인도네시아 지진복구 구호금 전달식

2018년 8월 10일, 인도네시아 적십자회 본부에서 ‘롬복 지진피해 지역 구호금 전달식’이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적십자회 Mr. Ginanjar Kartasasmita 부위원장, Mr. Sunarbowo Sandi 사무국장 외 20여명 등과 김창범 대사,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정희진 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금번 행사 계기,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5일 인도네시아 롬복 섬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과 이어진 여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현지 적십자사를 통해 현금 미화 5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까지 259명이 사망하고 1,03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7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로,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민 방문 계기로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는 등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행사에 참석한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롬복 지진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힘쓰는 인도네시아 정부, 국제사회와 적십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Mr. Ginanjar Kartasasmita 인도네시아 적십자회 부위원장은 우리 정부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하며, 최근 잦아지는 지진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제공: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 이낙연 국무총리 ‘동포·지상사 대표 만찬 간담회’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19일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한 ‘동포·지상사 대표 만찬 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2박 3일 동안 조코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을 4차례 만난다”며 “교민 여러분이 인도네시아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인도네시아 발전에 기여해준 덕이라 믿는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 총리는 전날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 전 조코위 대통령의 주선으로 리룡남 북한 내각부총리와 ‘3자 환담’을 하고, 개막식도 나란히 앉아서 관람했다. 이날 오후 태권도 품새 결승전을 조코위 대통령과 함께 관람했고, 21일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조코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이 진행됐다.

이 총리는 “교민과 기업인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은 그 나라와 사이를 좋게 만드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의 공통점이 양국관계를 좋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지도자가 국민 우선, 현장소통 중시 등 철학을 같이 하고, 스타일도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양영연 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아시안게임에서 평화의 이슈가 상징처럼 우리 선수들을 경기 내내 따라다닐 것”이라며 “이번 아시안게임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을 위한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하나 된 모습과 그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유기준(자유한국당) 의원과 회원인 지상욱(바른미래당)·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함께했다.

## 수카르노의 일생을 통해 본 인도네시아 현대사



독립전쟁 중의 술탄 하멩꾸부위도 9세(좌측). 맨오른쪽의 TB 시마뚜방 대령과 함께.

지난 호에 이어

하지만 그 협정은 그 후 본격적으로 벌어질 수라바야 전투를 막지 못했다. 전선을 순회하며 그 협정에 대해 설명하던 펠러비 준장이 인도네시아 민병대의 습격을 받아 사살된 것이다. 인도네시아군 역시 아직 휴전협정이 조인되었음을 모르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 교전이 시작되었고 수라바야에는 마침내 헬게이트가 열렸다. 영국군의 제 5 인디아 사단 24,000명의 중무장 병력이 셔먼탱크 24대와 함께 추가 상륙했고 전투기 24기, 순양함 2척, 구축함 3척이 동원되어 공중지원과 함포사격으로 가세했다. 이에 맞선 인도네시아 측은 공화국군 2만 명과 각지에서 모여든 민병대 12만 명이였다.

영국군은 인도네시아군의 즉각적인 항복을 요구하다가 11월 10일 마침내 수라바야를 대대적으로 폭격하며 공격해 들어갔다. 폭격과 함포사격 지원을 등에 업은 영국군은 도심 건물들을 하나하

나 제압하면서 사흘 만에 도시 대부분을 확보했지만 인도네시아군도 맹렬히 반격하면서 전투는 11월 29일까지 3주간이나 계속되었다. 부족한 무기로 인해 상당수가 죽창으로 무장해야 했던 인도네시아군은 6,300~15,0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이 시간을 버는 사이 20만 명 정도의 주민이 수라바야를 탈출할 수 있었다.

한편 영국군의 사망자는 600여 명에 불과했고 대부분 인디아 병사들이었다.

수라바야 전투에 영향을 끼친 팩터들은 수없이 많겠지만 수라바야에서 항복한 일본군 시바타 야이치로 제독의 결정도 그중 하나였다. 일본군은 연합군에게 무기를 넘겨주고 항복해야 했지만 인도네시아인들은 계속 일본군 무기고를 습격해 오고 있었다. 임박한 연합군과의 전투에 맨손으로 나서야 할 인도네시아군과 민병대들은 절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식 소총 몇 자루를 빼면 대부분 죽창으로 무장한 그들을 일본군의 당시 전력으로 충분히 섬멸할 수도 있었지만 시바타 제독은 하급부대들에게 교전을 자제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무기 탈취에 저항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인도네시아군에게 무기를 넘겨주라는 애기와 다름없었다.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군이 획득한 소총과 자동화기는 물론 탱크와 야포들을 아우르는 일본군의 무기들은 수라바야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 제대로 사용해 보기도 전 파괴되거나 유실되지만 3주 가까이 영국군에 맞서 장기간 항전할 수 있게 한 소중한 전력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시바타 제독이 연합군 대표로 온 네덜란드군 대위에게 정식항복한 것은 10월 3일의 일이었다. 또 하나의 팩터는 붕토모(Bung Tomo)라는 인물의 등장이었다. 수라바야 토박이인 이 사람은 수라바야 전투에 앞서 10월 22일 인도네시아 양대

무슬림단체 중 하나인 나드라툴 울라마의 지하드(성전) 선포만큼이나 파급력있는 라디오 연설로 인도네시아군과 민병대의 전투의지를 크게 북돋았다. 그의 카리즈마 넘치는 열정적 연설은 지금까지도 널리 기억되며 PETA 군복을 입고 연설하는 그의 사진은 독립전쟁의 아이콘이 되었다.

하리오 꼬찍(Hario Kecik)이라는 이름도 수라바야 전투에 한 획을 그었다. 그는 수라바야 전투에서 백발백중의 명사수이자 칼을 잘 다루는 전사로서 이름을 날렸다. 전후 그는 육군소장까지 진급하여 발릭빠빰에서 갈리만탄 제9 지역군 사령관을 역임했고 1965년 수카르노의 지령으로 소련에 갔는데 9월 30일 쿠데타로 수카르노가 실각하자 오랫동안 소련에 머문 후 1977년 귀국하다가 공산당 연루혐의로 공항에서 수하르토 정권 공안당국에 전격 체포되기도 했다.



이 수라바야 전투를 지켜본 수탄 샤리르는 전투 중 사용된 각종 폭력적 방법들이 부지불식간에 인도네시아의 청년들이 일본의 파시즘에서 본받은 것이라 생각하며 우려를 표한 반면 공산주의 지도자였던 탄말라카는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청년들의 영웅적 행동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연합군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 당시 인디아는 아직 파키스탄이 독립하기 전이었으므로 지금보다 무슬림 인구가 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수라바야에서 공화국군을 마음껏 농락하며 짓쳐 들어가던 영국령 인디아군 24,000명 중에도 당연히 무슬림 병사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격렬히 항전하다 피를 토하듯 ‘알라후 악바르’ (신은 위대하다!)를 외치며 죽어가는 공화국군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일본군 무장해제를 지휘하는 영국군 멜러비 준장과 전사 당시 탔던 차량.**

911사태 이후 전세계의 무슬림들이 미군의 아프간 침공에 분개하며 그중 일부가 현지로 달려가 탈레반에 합류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당시 인디아군의 무슬림 병사들도 똑같이 품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 중 600여 명이 전투가 최고조에 달했던 1945년 11월 10일 종교적 신념을 안고 무장한 채 영국군을 이탈해 공화국군으로 전향했다.

그것은 일견 매우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였다. 당시 영국군은 월등한 화력을 등에 업고 수라바야의 인도네시아군을 맘껏 유린하던 중이었으므로 우세한 영국군 진지를 떠나 죽음이 창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전향한 인디아 무슬림병사들 대부분이 수라바야 전투에서 전사했고 독립전쟁이 끝나기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불과 75명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 신념을 따랐던 그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들 중 일부는 인도네시아에 귀화했으나 많은 병사들은 전쟁으로 지치고 망가진 몸을 이끌고 인디아와 파키스탄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공화국군은 결국 이 전투에서 패했고 여기서 입은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로 인해 독립전쟁 내내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인들이 이 전투를 통해 보여준 독립에 향한 열정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끄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면전이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은 인도네시아군이 기본작전을 게릴라전술로 전회하는 지점이 되었고 인도네시아의 독립은 전쟁보다 정치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 수만 샤리르 총리를 외교전 최전선에 내세우는 등 대대적 정책변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편 네덜란드는 공화국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력함을 새삼 깨달아 군비증강을 더욱 서둘렀고 영국 역시 이 전투를 정점으로, 이후 중립적 위치로 돌아서 몇 년 후 유엔에서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독립을 지지하게 된다. 수라바야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11월 10일은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현충일’ 개념인 ‘영웅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 베스텔링 방식

영국의 도움으로 네덜란드군도 자카르타 등 주요 거점에 상륙했다. 그 직전인 1946년 1월 4일 공화국 지도부는 족자 술탄 하멩꾸보워노 9세의 절대적 지원을 받아 보다 안전한 족자로 천도했고 공화국군은 자카르타 방어전에서 8천 명의 사망자를 내며 결국 도시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족자는 전쟁기간 내내 인도네시아의 수도로서 복무했다. 오늘날 족자가 ‘특별시’의 지위를 얻은 것에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한다.

자카르타 인근의 보고르와 깔리만탄의 발릭빠반에서는 공화국 관료들이 체포되어 투옥되었고 네덜란드군의 수마트라 침공 준비단계로서 수마트라 최대도시인 메단과 빨람방에 대대적인 폭격이 이루어졌다. 1946년 12월 레이먼드 ‘터크’ 베스텔링 대위의 대소요전 특수부대가 남부 솔라웨시에서 임의테러기법을 사용한 것이 내외의 비난을 받지만 네덜란드군은 이 지역의 공화국 민병대 3천여 명을 당장 단 몇 주 만에 소탕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문제는 그들 3천 명이 정말 민병대였냐 하는 것이었지만 이 기법은 이후 공화국군이 그대로 배껴 써먹게 된다.

베스텔링 대위가 ‘터크’ (Turk)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그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이스탄불의 네덜란드 대사관을 찾아가 입대했고 영국군에서 코만도 훈련을 받은 후 전쟁 중 버마와 스리랑카에서 복무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9월 수마트라의 메단에 도착한 그는 첩보망을 구축하고 치안단을 조직해 네덜란드에 반기를 드는 불순분자들을 제거했는데 때로는 전범수준의 잔혹한 방법까지 동원하곤 했다. 폭력배 두목의 목을 베어 마을 한가운데에서 장대에 효수해 지하로 스며든 갱 부하들을 위협한 것 정도는 애교였다. 오늘날 이슬람국가 IS가 자행하고 있는 공포를 매개로 한 프로파간다를 70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특수부대가 먼저 선보였던 것이다.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DST(특수부대본부)의 코만도팀을 맡게 되는데 1946년 9월 자카르타에 주둔할 당시 그의 부대는 130명 규모로 네덜란드 베테랑들과 인도네시아-유럽혼혈, 토착 인도네시아인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영국식 코만도 훈련을 마스터한 상태였다. 그해 12월, 그는 술라웨시의 반란진압을 명령받았다. 당시 술라웨시엔 자바의 게릴라들까지 유입되어 현지 저항세력이 한껏 강화되어 있었고 심지어 현지 네덜란드 정부를 궤멸 직전까지 몰고가면서 많은 친네덜란드 인사들과 화교들이 공격받고 있었으나 현지에 주둔한 KNIL 일반부대는 그들을 보호할 여력이 없었다. 현지 통제력이 소멸되어 가는 기미가 역력하자 NICA는 베스털링과 그의 DST 부대에게 적을 분쇄할 전권을 위임했다.

베스털링은 가장 효율적인 진압방법이란 적 전사들을 현장에서의 즉결처분 하는 것이라 믿는 사람이었고 이 방법은 나중에 ‘베스털링 방식’이라고 특정해 불리기까지 했다. 그의 DST 부대는 미리 확보한 첩보에 따라 가장 의심스러운 부락 하나를 포위한 뒤 주민들을 마을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주민들 중 남자들을 따로 추려내 그들 중 ‘살인자’ 또는 ‘테러리스트’로 정보보고된 자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장에서 즉각 사살했다. 그런 후 베스털링은 부락 대표를 선임하고 자경단을 임의로 구성한

후 주민 전원에게는 절대 테러리스트의 길을 걷지 않을 것임을 꾸란에 두고 맹세케 했다. 베스털링은 주민 모두를 학살하지 않고도 질서를 잡아가는 자신이 매우 자비롭고 효율적이라 생각했겠지만 그건 실상 매우 잔혹하고, 모욕적인 행동이었다.

이 대소요작전은 1946년 12월에 시작해 이듬해 2월에 끝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 기간 동안 베스털링이 4만여 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역사학자들은 그 숫자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고 실제로 DST 부대에게 사살된 사람들은 1,500명 선, 이 중 400명만이 처형되었고 나머지 1,100명은 전투중 전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타 교전에서 전사한 인도네시아군이 1,500명이 더 있는데 그들은 친네덜란드 경찰이나 자경단에게 살해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즉결심판당한 인도네시아인들이 400명이든 4만 명이든 베스털링은 포로들과 로무샤들의 목을 기분 내키는 대로 베어 버리던 일본군 망나니들에 비해 하나도 끌리지 않는 냉혈한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다음호에 계속)



수라바야 항전의 아이콘 붕토모(Bung Tomo). 성공한 저널리스트였고 전후 정계에 입문한 그는 수하르토 정권과도 척을 지는 천상 반골이었다. 메카에서 세상을 떠난 그는 순례중 사망자들이 사우디 현지에서 매장되는 풍습에 따르지 않고 수라바야의 일반묘지에 묻힌다. 그는 국립영웅묘지에 무자격자들이 너무 많이 누워 있다며 그들과 같이 묻히기 싫다고 생전에 여러 번 피력한 적이 있었다. 그가 죽은 후 여러 해가 지나 2007년에 이르러 인도네시아의 독립영웅으로 지정된다.



# 2018년 8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 내년 대선, 조코위 대통령 지지율 52%로 나타나

최근 2019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인도네시아서베이연구소(LSI)가 실시한 내년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재선을 노리는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구 울레마협의회(MUI)의 의장인 종교 지도자 마루프 아민 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52.2%로 과반수를 넘었다.

21일 자카르타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제1야당인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 당)의 뿌라보워 수비안또 총재와 그가 부통령 후보로 지목한 자카르타특별주 산디아가 우노 부지사는 29.5%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8.3%로 나타났다.

LSI는 지난 12~19일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졸자의 지지율의 경우 뿌라보워-산디아가 후보가 44.5%로 조코위-마루프 후보의 40.4%를 웃돌았다.



한편, 부통령 후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지지율은 조코위 대통령이 53.6%, 뿌라보워 총재가 28.8%였다.

응답자 특성 별로는 비 무슬림 대졸자, 여성, 밀레니엄 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의 그룹에서 조코위-마루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조코위 대통령 단독 지지율을 밀돌았다.

비 무슬림의 지지율은 70.3%에서 51.3%로, 대졸자의 지지율은 50.5%에서 40.4%로 각각 하락했으며, 부통령 후보인 마루프 의장과 비교해 산디아가 부지사의 인기가 부각됐다.



## 100만 인니 자동차 시장 공략 속도낸다… 산업부 ‘한-인니 자동차 대화’ 개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자동차 분야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현대차 등 우리측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서울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대화’는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신남방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 실현을 위해 열렸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민방문 계기에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MOU를 체결하고 대표적인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차관보급 자동차 대화 채널을 신설하게 됐다.

우리측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수석 대표로 신남방통상과장, 자동차항공과장을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자동차가 참석했고 인도네시아 하르잔또 산업부 차관보를 수석 대표로 자동차 국장,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2017년 기준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규모는 약 100만대로 아세안 자동차 시장(319만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약 97%는 일본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차 시장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아세아시장만 놓고봐도 일본 브랜드 점유율은 약 79%인 반면 한국자동차 브랜드 비중은 약 4.3%에 그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오는 2025년 145만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인도네시아 정부간 자동차 대화는

우리 업계의 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인도네시아에 한국 자동차가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부품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종류(4도어/5도어)나 배기량(1,500cc 미만/1,500cc 이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비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소비세는 도어나 배기량에 관계없이 5%로 동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4도어 1,600cc 이상이 주종을 이루는 우리 자동차업체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데 차등적인 세율 적용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양국간 자동차 산업 협력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자동차 소비세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차량의 타입(4도어·5도어), 배기량(1,500cc 미만·1,500cc 이상)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도어 1,500cc 미만과 1,500cc 이상엔 각각 30%, 40%의 세율을, 5도어 150cc 미만과 1,500cc 이상엔 10%, 2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4도어 1,600cc 이상이 주종을 이루는 우리 자동차 업계에는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세율 적용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는 한-인도네시아 양측이 다양한 자동차 메이커가 존재해야 건전한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우리 자동차 업계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인니 롬복 섬 강진 사망자 563명으로 늘어

인도네시아의 휴양지 롬복 섬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563명으로 늘어났다.

26일 트리뷴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사회부의 해리 히끄맛 사회안보국장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롬복과 주변 지역에서 집계된 사망자의 수가 563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진앙인 북(北) 롬복 지역(471명)에서 발생했다.

서(西) 롬복과 동(東) 롬복 지역에선 각각 45명과 26명이 숨졌으며, 롬복 섬의 중심도시인 마따람 시내에서도 1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중부 롬복 지역에선 2명이, 이웃 솅바와 지역에선 7명이 무너진 건물에 깔리거나 파편에 맞아 사망했다.

부상자 규모는 1천116명으로 집계됐다.

재난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7만1천900여 채의 집이 무너져 약 4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진 탓에 피해 지역 주민들은 3주일이 넘도록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롬복에서는 지난달 29일 섬 북부 린자니 화산 인근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강한 지진이 반복돼 왔다.

특히 이달 5일 저녁에는 역시 섬 북부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일어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초래됐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은 롬복 섬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7조7천억 루피아(약 5천880억원)로 추산했다

## 공항 운영사 양까사 뿌라2, 자카르타 제2공항 2020년 착공 계획

인도네시아 국영 공항 운영사 양까사 뿌라2(PT Aangkasa Pura2)는 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을 뒤 이은 자카르타 제2 국제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액은 100조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전망, 202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 데일리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AP2의 무하마드 사장은 “제2 공항 건설 후보지로 현재 공항 북쪽에 있는 3개 지역을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무하마드 사장은 “건설지로 가장 이상적인 지역은 현재 공항에서 15~20킬로미터의 떨어져 있어 자카르타 경전철(LRT) 등 대중교통과 연결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의 연간 여객 수는 올해 6,700만명으로 5년 후에는 1억명에 달할 전망이다. AP2는 제4 터미널과 제3 활주로 확충으로 1억명의 여객에 대응할 계획이다. 무하마드 사장은 “제2 공항 건설은 그 이후 여객수 증가를 예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아시안게임 기간 중, 자카르타 여행 관련 검색 1위는 '서울'



이 열리는 기간 중 자카르타를 방문하는 항공권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아시안게임으로 이름을 알린 인도네시아 팔렘방 또한 같은 기간 81% 늘어났다.

우리나라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 차례 증명됐다.

우리나라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아시아에서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스캐너 조사 결과, 2018 하계 아시안게임 기간 자카르타로 여행을 떠나는 항공권을 가장 많이 검색한 도시는 우리나라 '서울'로 확인됐다.

스카이스캐너 조사에 따르면 2018 아시안게임 기간에 경기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는 항공권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도시는 우리나라 서울, 일본 도쿄, 싱가포르 순이었다. 이는 스카이스캐너가 2018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다녀오는 전 세계 항공권 수만 여건을 분석한 결과다.

약 45억 명에 달하는 아시아인의 최대 스포츠 축제 '제18회 아시안게임'이 지난 18일 인도네시아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축구와 야구 등 우리나라 인기 스포츠가 포함되어 있는 데다 올해는 손흥민, 조현우 등 러시아 월드컵에서 대활약했던 축구 스타들이 참여해 더욱 관심이 뜨겁다.

이러한 열기를 반증하듯 우리나라 여행객이 스카이스캐너를 통해 검색한 항공권 중 아시안게임

스카이스캐너가 2018 러시아 월드컵 기간 러시아를 방문한 항공권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 83개국 중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한 국가는 '한국'이었다. 우승국 징크스를 넘지 못하고 16강에 미끄러진 독일과 선전을 보여준 영국이 러시아를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스카이스캐너 한국 총괄 최형표 매니저는 "올해 개최된 아시안게임은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대거 참여한 데다 남북 단일팀 등 관전 포인트가 풍부해 역사의 순간을 함께하고자 하는 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평창 올림픽 등 세계적인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가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주요 관광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방문



지난 8월 18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을 방문하였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방문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산하의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을 방문하여, 한국문화원 시설을 둘러보고 현지인과 한국 교민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국문화원에 도착한 도장관은 방명록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는 자신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의 한 구절 자필로 남겼다. 또한 사진 접수를 통해 접수된 약 100명의 현지인들과 교민들과 함께 2018년 한 해 동안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이 거처온 길들을 동영상으로 함께 감상하였다.

또한 도장관을 환영하는 현지인들의 환영인사를 비롯해 지난 문화강좌 수업을 통해 꾸려진 판소리 팀의 아리랑 판소리 공연,



2015년 세종학당 우수자 비아니씨의 ‘흔들리며 피는 꽃’ 시낭송 관람시간을 가졌다.

도장관은 이에 “인도네시아에 3번째로 방문한다. 인도네시아를 좋아하며 자주 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흔들리며 피는 꽃’을 직접 재낭송 해주어 현지인들과 교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교민들과 현지인들로부터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고, 셀카를 함께 찍는 등 참가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도장관은 이날 저녁 열리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 참여하고, 코리아 하우스 개관식 방문 및 한국 선수단 방문과 동포 간담회 참여, 아시안 게임 경기 관람 등의 일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전통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한국문화 알리기 위한 특별 강연 2018 세종문화아카데미 성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이하 KSIC)은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KSIC 문화체험실에서 <2018 세종문화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세종문화아카데미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세종학당재단에서 직접 선발한 각 분야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한국의 문화예술을 현지에 소개하는 세종학당의 표준 문화과정이다.

7월 23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영화와 드라마(7/23), 한글 캘리그래피 (7/25), 한복장신구(8/1), 전통혼례 체험(8/2), K-beauty(8/8), 사물놀이 공연 (8/11)을 진행하였으며, 각 강좌를 성실하게 이수한 수강생들 대상으로 8월 13일에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올해 세종문화아카데미 강의 진행을 위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한글박물관, 한복진흥센터 및 CJ E&M 등과 협력하였다.

모든 강좌가 끝나고 8/13(월) KSIC 문화체험실에서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그간 진행된 강의에 빠짐없이 참가한 수강생들에 수료증을 전달하였을뿐 아니라, 그동안 세종문화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카메라에 담긴 사진 및 영상들을 함께 보며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통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의 한국 문화를 전문 강사에게 직접 배운 이번 세종문화아카데미를 통하여 수강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지식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며, 2019년에는 더욱 다채롭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고자 한다.



## [독립투쟁의 보편성]

#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속 한국인 투사, 양철성의 역할'



2018년 8월 18일 (토) 오전 10시부터 뽀로끌라마시 거리(Jl. Proklamasi)의 위스마 뽀로끌라마시에서 '독립투쟁의 보편성:인도네시아 독립전쟁 속 한국인 투사의 역할' 이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7일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었던 수카르노의 집터 위에 만들어진 '선언자들의 공원' 바로 건너편에 2018년 2월 개업한 이 2층짜리 동(東)인도네시아 음식 전문점은 작은 발표자 좌석과 백드롭, 스크린 외에도 60명 넘는 관계자들과 언론, 기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담하고도 고풍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북말루꾸 부빠띠라는 식당 주인의 취향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세미나를 주최한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Historika Indonesia)는 인니 독립투자들의 기록을 발굴, 유지하고 그 후손들을 도우며 민간에 대한 역사교육, 장학금, 역사 웹사이트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14년 11월 설립된 조직입니다. 이날 주연사로서 양철성과 빠빠 왕자의 부대(Pasukan Pangeran Papak)의 활약과 그들의 최후를 강연

한 저널리스트 헨디조 (Hendi Jo)는 그 창립자들 중 한 명입니다.

루슈디 후세인(Rushdy Hoesein)은 독립전야 수카르노의 행보와 당시 시대상을 팩트를 기반으로 설명해 주었는데 그는 73세에 접어든 저명한 인도네시아 사학계 원로로 인도네시아국립대(UI) 교단에서 은퇴한 후 인도네시아 최대 역사 커뮤니티인 '꼬무니타스 히스토리아 인도네시아' (Komunitas Historia Indonesia)을 이끌며 활발한 강연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보조부대 역할이었던 현지 헤이호(Heiho-兵補) 지원자 대상으로 6주간 일본어를 가르치는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일본군 군속 양철성을 중심으로 그를 발굴해낸 일본인 우쓰미 아야꼬, 군속과 포로감시원의 모집 과정과 태평양전쟁 말기 그들의 운명에 대해 강연한 로스티뉴(Rostineu) UI대 문화지식학부(FIB) 교수는 한국에서 이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던 재원입니다.

이날 행사를 도운 UI대 한국어과 학생들은 물론 가룻 부빠띠 대리인, 전주 MBC 등 국내외 언론과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가룻은 빠삐 왕자의 부대가 출몰하던 곳으로 폭파 전문가이자 부대의 브레인 역할을 한 양철성이 활약하다가 체포되어 동료 하세가와, 아오키 등과 함께 처형당해 매장된 곳이기도 합니다. 흐릿한 사진 속의 양철성은 다부져 보이는 체구에 미남이었고 최후의 순간 무슬림 투사 꼬마루딘(Komarudin)으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는 사공경원장, 채인숙특임연구원, 엄은희객원연구원(서울대 사회과학대학원) 등 몇 분과 헤리티지 코리아섹션(회장 김상태)의 회원들과 위스콘신 메디슨 칼리지의 정은숙 정치학 교수, 김성월작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세 시간에 걸친 세미나를 마친 후 주최측에선 모든 참석자들에게 동인도네시아식 요리를 점심으로 제공했고 한국인 참석자들은 2층에서 주최 측 및 세미나 발표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의 세미나는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양철성으로 대변되는 제3국인들도 깊숙이 개입되었던 것이 당시 인도네시아의 독립이 인도네시아로 한정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감하던 국제적 사건이었다는 다소 피상적인 접근이 이루어졌고 질문을 제기한 참석자들 중엔 한국이 일제시대를 통해 세계정세를 읽는 안목을 키울 기회를 얻었다거나 당시 일본을 위해 일한 징용자들이나 포로감시원들이 귀국하여 아직도 일본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식의 인식을 드러낸 부분은 한국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역사적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주최했어야 할 테마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사학계 인사들이 먼저 세미나를 조직했다는 사실만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행사를 후원한 한국문화원 천영평 원장은 양철성 역사세미나를 계기로 인니 역사 속의 한국인을 조명하는 세미나가 앞으로 많이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였습니다.

배동선 (한인니문화연구원 특임(역사)연구원)





## AGNEYA (다르마왕사)

글: 주윤지 (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 박부장 : 김대리, 다음주 한국에서 본부장님 오시는 괜찮은 인도네시아 식당 좀 예약해줘. Seribu Rasa, Tesate, Remboelan 말고!
- 김대리 : 네? 그 식당들 말고는 모르는데요... 아... 새로 찾아 보겠습니다...

짜잔~ 오늘은 손님접대에 좋은 고급 인도네시아 음식점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작년 연말에 오픈한 식당 <AGNEYA>는 한인 분들의 밀집 주거지역인 Dharmawangsa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식당에 들어서서는 순간, 내가 현지식당에 온 건지 웨스턴 식당에 온 건지 잠시 착각을 하  
는데요. 식당 중앙에 설치된 Bar, 멋진 미술 작품, 은은한 조명 등 고급스런 인테리어로 손  
님들에게 강한 첫 인상을 줍니다. 사실 분위기 좋은 식당 중 음식 맛까지 뛰어난 식당은 그  
리 많지 않은데요. 이 곳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줍니다.

우선, 가볍게 에피타이저인 Jagung Goreng Keriting(48,000루피아++)으로 시작합니다.  
이 음식은이 곳의 인기메뉴 중 하나로, 매콤달콤 짭조름한 분말가루가 묻혀진 용트림 모양  
의 옥수수 구이입니다. 묘한 분말가루 맛과 옥수수가 잘 어우러져 식욕을 급상승 시킵니다.  
입맛이 어느 정도 돋았을 때, Sate Ayam Saos Kacang(3pcs 68,000루피아++)이 등장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Sate Senayan>의 Sate가 가장 맛있는 줄 알았는데 이 곳 Sate는  
고기덩어리가 큼직막한게 씹히는 맛이 참 좋습니다. 일단 50cm가 넘는 긴 나무꼬치가 작  
은 향아리에 담겨져 나오는 비주얼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 잡습니다. 특히, 모든 종류의  
Sate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프로모션 <Sate All You Can Eat>이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만 진행되는 것이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이제 메인 메뉴가 나올 타이밍인데요. 이 곳의 인기메뉴인 대나무통에 담긴 Ayam  
Bakar Bambu Bulu Nangko(148,000루피아++)입니다. 보통 인도네시아식 닭요리는  
튀긴 음식이 대부분인데, Kangkung, 매콤한 고추, 약재와 함께 대나무통에 찐 닭요리는



이 곳에서 처음 접해 봅니다. 이 음식을 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한국의 단호박 훈제오리찜이 자꾸 생각나더군요.(앗! 갑자기 한국이 가고 싶어 지네요…)

닭요리 말고도 이 곳 쇠고기 요리도 맛있습니다. 현지식 우설 스테이크인 Bistik Lidah Bakar(182,000루피아++), 바로 입안에서 살살 녹는 게 고기결이 끝내줍니다.

다만, 스테이크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단조로운 플레이팅과 사이드메뉴로 나온 소스없는 단고구마·감자구이, 다른 음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다소 아쉽습니다.

밥류로는 종업원이 Nasi Goreng Ayam Telor를 추천해 줬지만, 닭요리를 이미 두 개나 주문하여Nasi Bakar(56,000루피아++)를 주문하였는데요. Sambal Hijau가 함께 곁들여 나와 자칫 느끼할 수 있는 현지식의 밸런스를 잘 맞춰 주며, 밥보다 많은 야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녁식사 타임에 맞춰 운영되는 라이브 밴드의 연주는 너무 시끄럽지도 않게 마치 와인바에 온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신청곡도 받으니 특별한 기념일에 주인공을 위한 신청곡 한국은 어떠실까요? 또, 12명 정원의 Private Room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소규모의 행사 장소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 AGNEYA

1. 음식 종류 : 인도네시아 음식
  2. 가격대 : Rp 600,000 / 2인 기준
  3. 영업시간 : 월-일 11:30 ~ 23:00
  4. 전화번호 : 021-2975-9253
  5. 위치 : Jl.Wijaya IX No.23, Dharmawangsa, Jakarta Selatan
- ※ Zomato 참고

## Korean Night



8월 25일 코리아 하우스에서 열린 ‘한국인의 밤’ 행사에 이기흥 대한체육회회장, 셰이크 아흐마드알사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OCA)의장, Erick Thohir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조직(INASGOC)위원장, 유승민 국제올림픽(IOC)위원, 김성조 대한민국선수단 단장,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 양영연 한인회회장, 강희중 재인니 대한체육회 회장과 손연재 등이 참석하여 비빔밤세러모니를 비롯하여 아시안게임의 한국선수단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국제 스포츠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증진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세워진 코리아 하우스(자카르타 SCBD)는 8월 19일 개관하여 9월2일 까지 운영되었다.

아시안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스포츠 강국 한국의 다양한 문화체험(한국영화 상영, 미디어 한류 콘서트, 다양한 체험행사)과 전통 문화 전시로 한국을 홍보하고, 현지인들과 함께 한국전을 응원하며 대형스크린을 통한 단체 관람 등이 하루 종일 펼쳐졌다.



## 한인니문화연구원 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및 나주시 '천연 염색 문화재단'과 MOU 체결



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은 지난 9일, 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권영숙교수, 정원섭소장, 안순주연구원)와 '한국·인도네시아 전통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정을 맺었다. 같은 날 나주시 천연 염색 문화재단(허복구 국장)과도 연구 교류 협정을 맺었다. 한인회에서는 박재한 수석부회장과 최인실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연구원에서는 김한태자문위원, 조은숙부원장, 전민규 수석팀장, 조은아 팀장이 참석하였다.

문화연구원을 방문한 부산대학교 연구팀과 천연 염색 문화재단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통문화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하여 노력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전통공예융합 기술화와 전통 공예 전문인력 양성, 인도네시아 섬유관련 진출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연구팀은 바틱과 같은 인도네시아 전통 직물의 디자인 또한 구매 의욕을 불러 일으킬만한 디자인과 소재로 개선 한다면 충분히 대중 산업화 될 수

있으며, 전문 디자인 교육 및 발굴, 기술적/과학적 저해 요소 해소, 교육을 통한 저변 확대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 섬유 산업이 사향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산대 연구소와 문화재단이 가진 금속 및 염직 공예의 우수한 기술력과 결합이, 인니 한국 섬유 업체들의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그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의 염직, 패션 주얼리 전시 판매장 조사, 유네스코 자카르타 지역사무소, FITI시험연구원 자카르타 사무소, 코트라(KOTRA) 자카르타 사무소, 인도네시아 한인회, 그린비즈니스센터를 방문 논의한 결과 한인니문화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문화연구원 조은아 팀장)



# 나의 '로시난테'



우병기 /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bgwoo@korindo.co.id

자 카르타로 복귀 한지 한 달이 조금 안되었을 때 후배에게 전화가 왔다. “형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자카르타 컴백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도대체 왜 안 만나는 겁니까?”

한번 봅시다. 비싸게 굴지 마시고.” 아직 한 달이 안 지났는데, 후배 녀석은 한 달이 넘었다고 항의를 해댔다. 후배의 전화를 받고 요즘 여러 가지 일로 복잡했는데, 소주한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근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약속장소로 향했다. 요즘 자카르타는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국제행사로 토목 공사를 많이 한다. 때문에 마치 온 자카르타 시내가 혼잡한 공사장으로 변했다. 평소에도 하루 종일 막히는 거리가 정도가 더 심해졌다. 게다가 오늘은 비까지 내린다. 차분한 마음으로 라디오를 켰다. 나에게서는 이렇게 차가 막히고 비가 오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정확하게 2년 7개월 전이다. 나는 운전기사인 수크마에게 지금 근무지인 자카르타에서 인니의 동쪽 섬으로 내일 떠난다고 말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차창 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타이핑하고는……웬지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늘그랬듯이 그는 왜냐고 묻지도, 어디로 가느냐고도 묻지 않았다. 내가 자카르타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나는 지역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자카르타로 돌아왔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수크마는 반갑게 인사를 하며 나를 반겨 주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수크마에게는 좀 길었던 것 같다. 3년 전보다 살도 많이 쪼고, 다리를 살짝 절기까지 했다. 수줍어하면서 해맑게 웃는 모습은 그때와 조금도 다름없었다. 그와 그의 가족 모두는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그동안 잘 지냈다고 했다. 그리고 아이가 하다 더 생겨서 이제는 셋이라고 손가락 세 개를 펴 보였다. 어느새 그는 동네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배 나온 아저씨가 되어 있었다.

자카르타 생활에서 운전기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각종 인도네시아 정보를 알려 줄 뿐 아니라, 안전까지 책임을 져주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수크마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운전기사였다. 자카르타로 복귀하자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고, 새로운 기사도 소개받았다.

이름은 우노(Wuno), 나이는 나와 비슷한 40대 중반이라고 했다. 우리 회사에서 근무한지는 10여년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특별한 기억이 있는 운전기사는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 번호를 교환하고, 앞으로 내가 이용하게 될 차량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악수를 했다. 그리곤 잘해보자는 의미로 눈인사를 주고받았다. 새 기사는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기에는 체격이 왜소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나는 이미 인도네시아 생활 10년을 넘었고, 이제는 자카르타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스스로 찾고, 어떤 분야에서는 즐길 수 있는 위치까지 이르렀기에 운전기사가 주는 정보에 크게 기댈 필요도 없었다. 이제는 수크마와 같은 최고의 운전기사가 굳이 나에게서 필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 가지 못했다. 문제는 출근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아무래도 출근 첫날이라 시간을 넉넉히 잡고 출발했다. 아파트 정문을 지나 큰 도로에 들어서자 차가 서서히 밀리기 시작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지방에서 시원하게 달려 있는 국도를 야생마처럼 거침없이 질주하다가 세계에서 1,2위를 다투는 교통지옥이라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자카르타 시내 한가운데에 들어서니 갑자기 숨이 턱 막혀왔다. 드넓은 아프리카 초원을 질주하는 치타를 잡아다가 1평도 안 되는 우리 안에 쳐 넣은 꼴 같았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상황이 벌어지니 당황스러웠다. 심호흡을 하고 어제 저녁에 읽다 만 줄리언 반스의 소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꺼냈다. 그리고는 이어폰을 끼고 조용한 최신 발라드 음악을 들었다. 조금 안정은 되었지만 마치 사진의 한 것처럼 멈춰 있는 차 창밖 풍

경은 여전히 낮 설고, 어색하기만 했다. 정체는 계속되었고 운전기사는 가끔 룸미러로 나를 쳐다보긴 했지만 그다지 신경을 쓰는 눈치는 아니었다.

그는 소위 앞만 보고 달리는 운전기사 같았다. 6Km 정도 되는 거리를 50분여 만에 도착했다. 나는 운전기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차에서 내렸다. 도착한 사무실 주변 공기도 혼탁 했지만, 멈춰 있는 차의 실내공기보다는 좀 나았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다. 여전히 나는 자카르타 교통 상황에 적응을 못하고 있었다. 이제는 정도가 더 심해져서 차안에서 가끔 화가 치밀어 올랐고, 화를 감당하지 못할 때는 차 시트를 뒤로 당겼다가 밀었다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한쪽 뇌에서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전 운전기사인 수크마와의 좋은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내면서, 나도 모르게 한마디 툭하고 내 뱉었다. “수크마는 시원하게 달렸는데…….” 사실, 수크마가 운전하는 차는 소설 삼국지에 등장하는 관우의 애마 <적토마>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그에 비해 새로운 기사가 운전하는 차는 돈키호테의 힘없고, 늙은 말<로시난테>와 같다고나 할까? <적토마>는 어떤 차량이건, 오토바이가 앞을 가로막는 모든 탈것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피할 수 없는 정체구간이 나타나면 거침없이 골목길로 들어섰다가 이내 쏜살같이 큰 도로로 다시 나왔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철저하게 신호등의 색깔도 무시해 버렸다.

바람을 가르며 거침없이 질주 하지만 항상, 누구보다도 먼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의 명성은 이미 한국인 동료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다. 나는 <적토마>를 탑승해본 동료들이 침을 튀기며 쏟아내는 우호적인 탑승 후기를 은근히 즐기기도 했다. 그에 비해 지금의 <로시난테>는 언제나 앞만 보고 달렸으며, 방향을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듯 해 보였다. 어떤 차량이건 양보하며 마치 양보가 미덕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 도로에 나선 차량같이 느껴졌다. 내가 자카르타를 떠난 후 수크마는<적토마>라는 이름에 걸맞은 고급차를 운전하는 기사로 자리를 옮겼다. 그의 화려했던 명성에는 좀 못 미친다는 평도 있긴 하지만, 탁월할 운전 실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나를 태운 <로시난테>는 퇴근과 동시에 쏟아지기 시작한 빗속을 뚫고 약속장소로 뚜벅뚜벅 가고 있었다. 약속 시간은 이미 훌쩍 지나 버렸다. 후배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선 나머지, 나는 운전 스타일에 참견을 해 버렸다. 스스로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만 것이다. 나도 속이 상했고, 기사도 느닷없는 나의 간섭에 마음이 상한 것 같았다. 라디오에서는 영화 <쇼생크 탈출>의 OST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후배 얼굴을 대하니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 우리는 별로 재미있지도 않은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게 떠들면서 소맥을 훌쩍거렸고, 남자들만의 옛이야기에도 박장대소를 해댔다. 즐거운 이야기가 있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같이 있어서 즐거운 것이리라. 어느 정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정리될 즈음 나는 요즘 <로시난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후배 녀석이 말하기를 형도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 거라면서 한마디 했다. “뭘 소리야 아직 새파란 청춘에게 끈대라니, 어이가 하나도 없네.” 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속어 하나를 살짝 집어넣으면서 나름대로 끈대 발언에 항의를 했다. 그리고는 허연 이빨을 드러내면서 그 놈과 똑 같이 웃어 주었다.

“형님!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아무래도 <로시난테>는 핑계인 것 같고, 실제로는 새로 바뀐 환경에 제대로 적응 못하는 형님 자신 때문에 화난 거 같은데…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면 좀 어때? 내가 보기에는 형님 진짜 멋지게 잘하고 있구면, 나는 형님이 잘 해낼 거라 믿어요.”

하면서 주먹을 살짝 쥐며 씩 웃었다. 몇 년 전 후배가 자카르타로 처음 왔을 때 내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그 후배에게 듣게 될 줄이야. 식당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비가 그치고, 멋지게 반짝이는 광택을 새로 입은 <로시난테>가 식당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머나먼 타국 자카르타에서 좋은 사람과 얼큰하게 취할 때까지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로시난테>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맙고, 미안했다. 나는 후배와 인사를 하고 <로시난테>에 올라탔다.

그렇다. 나는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누구에게나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나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자. 지금은 군에서 제대한 복학생 처럼 단지 모든 것이 낯선 것뿐이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한 걸음씩 열심히 가다 보면 예전처럼 익숙해 질 것이다. 어느새 차창 틈사이로 시원해진 바람이 들어와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얼굴을 스쳤다.



# 중소기업 ombudsman,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중소기업 애로해소에 나섰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및 한인중소기업협의회 중소기업 5개사와 간담회

중소기업 ombudsman(오부즈만 박주봉)은 8.23(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규제개선 간담회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효율적인 사업운동을 가로막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여 해외진출 우리 중소기업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ombudsman과 인도네시아에 투자진출한 건설, 봉제 및 유통분야 중소기업 5개사가 참석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는데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규제를 청취하고 집중 발굴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별도의 투자 인허가 발급 및 관리 기관인 투자조정청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외국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기관들로서는 관세청, 이민국, 노동부 등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 ombudsman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1번지인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시장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데 발생하는 고질적인 애로사항과 규제를 적극 해결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진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ombudsman은 “이번 해외진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 중소기업 직면하는 많은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작은 힘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수직천석(水滴穿石)의 정신을 가지고 현지 정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공: 중소기업 ombudsman)



비교해  
봅시다

#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인도네시아어



대박 한국어학원장 박경재  
gurubahasakorea@gmail.com

## 안녕하십니까? 교민 여러분

올해 8월의 자카르타는 유난히 붐비는 것 같습니다. 여러 국경일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겹쳐 길거리를 알록달록 수놓은 현수막들과 국기들을 보니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인도네시아어” 보다는 잘 모르고 있거나 틀리게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역사”에 대해 한 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8월의 대표적인 국경일로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민 여러분께서는 왜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이 8월 17일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번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역시 학생들 때문인데 많은 학생들이 왜 독립기념일이 17일로 정해졌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묻더군요. “선생님, 왜 한국은 독립기념일이 8월 15일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에게 되물었습니다. “왜 인도네시아는 8월 17일인가요?”

## 10명 중 9명이 모르는 역사

인도네시아 분들에게 왜 독립기념일이 8월 17일인가에 대해 물으면 10명 중 9명은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일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여 독립한 국가 중 하나인데 한국은 8월 15일이고 인도네시아는 17일, 이틀이 늦습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이 늦은 이유를 찾으면 크게 2가지 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가 미신을 믿어 17일로 정했다는 설(인도네시아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승리한 연합군과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다시 지배하려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독립 세력에 우호적인 일본군 장교가 도와주었다는 설(한국 인터넷에 주로 떠돌고 있음)이 있습니다. 둘 다 설이기 때문에 딱히 틀렸다고 말하기 보다는 사실을 알고 설과 함께 엮어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독립전상황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하루 뒤에 인도네시아 독립 세력들은 이전에 있던 독립준비단체의 이름을 PPKI(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로 바꿉니다. 8월 9일 가와사키에 다시 폭탄이 투하되자 PPKI 수장인 수카르노와 하타는 당시 베트남 달랏에 있는 일본 육군대장을 만나러 갑니다. 이 육군 대장은 수카르노와 하타를 대표로 한 PPKI 팀에게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독립하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 사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했다는 뉴스를 라디오로 접하게 되고 이들은 인도네시아 독립 선언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해집니다. 사실 일본은 이미 8월 24일을 잠정적으로 인도네시아 독립일로 지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수카르노와 하타는 부랴부랴 독립 선언을 외치기 위해 베트남에서 8월 14일에 인도네시아로 돌아왔으나 다른 독립투사들, 특히 젊은 층의 독립투사들과 이견을 보이게 됩니다. 수탄 샤흐리르라는 독립투사는 베트남 달랏에서의 일본 장교와의 회담은 일본의 계략-인도네시아가 독립하게 될 것이라는 정보는 거짓-이라고 규정짓고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왜 빨리 독립 선언을 하지 않느냐고 수카르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수카르노는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 선언을 했다고 해도 인도네시아의 독립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독립 선언을 한들 더 위험한 내분, 즉 인도네시아 스스로가 권력 투쟁에 휩싸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수카르노 스스로가 권력을 잡기 위해 독립을 조금 미루려는 명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수카르노는 하타에게 수탄 샤흐리르는 인도네시아 독립준비위원회의장이 아니므로 독립 선언을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일본의 항복과 인니 독립 전개

8월 14일 일본은 도쿄만으로 들어온 미합중국 미주리 전함에서 태평양 전쟁의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일본 해군은 인도네시아 영유권을 연합군으로 이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탄 샤흐리르 및 젊은 독립투사들은 이 소식을 BBC 라디오를 통해 접했고 기성세대 독립투사들에게 빨리 독립 선언을 하라고 재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수카르노와 하타는 당장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 권력 쟁탈로 인한 자국민들의 출혈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기성세대가 독립 선언을 하지 않자 인도네시아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 선언을 원했던 젊은 층의 독립투사들은 인도네시아 독립준비위원회를 일본의 잔재 또는 친일 세력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카르노와 하타는 일본의 항복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군을 찾아갔으나 이미 일본군은 없는 상태였고 일본 해군장교인 마에다의 집까지 찾아가서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수카르노와 하타는 인도네시아 독립준비위원회를 소집하여 8월 16일 10시에 독립 선언 회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16일 회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수카르노와 하타가 납치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이 둘을 납치했을까요?

## 납치당한 수카르노와 하타

젊은 독립투사들은 당시 정국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자 수카르노와 하타를 납치합니다. 수카르니, 아담 말릭, 무와르디, 위카나, 카엘루르 살레, 디아드 등등이 주요 인물들인데 이들은 수카르노와 하타를 모시고(?) 자신들의 요구를 말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독립은 일본에 의해 독립하는 것이 아니다. 인도네시아의 독립은 일본의 선물 같은 것이 아니다. 일본의 잔재인 인도네시아 독립위원회가 독립 선언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등등의 요구였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수카르노와 하타는 어떻게 풀려났을까? 납치된 상태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등 앞서 잠깐 언급한 설 중 하나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젊은 층의 독립투사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카르노-하타 납치라는 초강수를 두지만 결국 인도네시아 독립준비위원회가 주체가 된 독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설은 수카르노와 이슬람을 미화시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판단은 독자님들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카르니 : 혁명은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정부를 세울 겁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독립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수카르노 : 않는다면, 뭐?

(모두가 숨죽이며 수카르노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고요한 정적이 찾아오고 수카르노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수카르노 :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베트남에서 나는 이미 독립 선언을 17일로 계획했다.

수카르니 : 왜 지금 하지 않습니까? 16일도 아니고 왜 17일입니까?

수카르노 : 왜냐하면 나는 미신을 믿기 때문이다. 17일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숫자 17은 신성한 숫자다. 첫째로 우리는 라마단이라는 신성한 달을 지내고 있다. (실제 당시 라마단 기간이었음) 또한 오는 17일은 금요일이다. 금요일은 신성하며 즐겁고 행복한 날이다. 알꾸란(이슬람 성서)에도 무슬림들은 17번의 동작으로 절을 한다. 그런 연유로 17은 성스러우며 인간이 만든 숫자가 아니다.

이 이야기가 수카르노가 미신을 믿어 독립 선언을 17일에 하게 되었다는 설입니다. 또 다른 설인 일본 장교가 도와주었다는 설은 수카르노와 하타가 일본 장교인 마에다의 집에 일본의 항복을 확인하러 가자 매우 환대하며 맞이해 주었다는 점에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권력가인 수카르노와 하타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면 두 번째 설도 완전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인도네시아의 독립 선언이 늦어진 이유를 종합해보면 독립 주체들의 신구 세력 또는 친일과 반일 세력 간의 알력 다툼, 정세를 빠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세력을 하나로 규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발리 마을의 반자르(Banjar) 문화에서 본 전통 공공건축

김소영 (한인니문화연구원 국제교류팀  
(건축사) 연구원,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인**도네시아 발리 섬은 자바섬의 동쪽에 위치하고 면적이 약 5,500km<sup>2</sup>에 달하는 섬이다. 한국인들에게 발리는 고유의 문화를 가진 하나의 섬이라기보다는 최고의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만큼 해변과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반면 관광지로 매우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문화를 지금까지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특별한 섬이기도 하다. 발리 사회는 이슬람교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섬들과는 달리 힌두교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집단이 각각의 사원을 가지고 생활이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발리의 전통 마을인 데사 아닷(desa adat)은 몇 개의 반자르(banjar)로 나뉘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이며 지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반자르의 구성원은 가까운 이웃에 사는 결혼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원들은 awig-awig banjar라는 규칙에 의해 통제되며 구성원간의 격식, 전통적 법규 및 규칙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반자르 구성원들은 상호협조에 대한 규칙을 지키며 살아왔다. 공공의 규칙과 활동이 매우 중요한 만큼, 반자르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공공건축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이 공간은 마을 주민들의 모임, 회의, 행사, 공동 작업 등 여러 방식으로 이용된다. 이 글에서는 발리 반자르 구성원의 문화와 마을의 중심에 위치하는 전통 공공건축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반자르 구성원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축물은 발레 반자르(Bale Banjar)라고 불리며, 일반적인 발레 반자르는 완틸란(Wantilan)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발레 반자르가 있는 마을의 공적인 영역에는 대부분 발레 쿨쿨(Bale Kul-kul)이라고 불리는 고루(鼓樓, 큰북을 단 누각)가 놓인다. 먼저, 완틸란 형태의 건물은 발리의 전통 마을에서부터 비교적 현대화된 마을에까지 흔히 볼 수 있다. 각 마을 완틸란의 구조재와 내부장식은 지어진 시기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형태는 거의 유사하다.



전통적 Wantilan의 측면 형태  
(출처 : Made Wijaya, Architecture of Bali, Editions Didier Millet, 2002)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 완틸란 건물의 형태 saka라고 불리는 나무 기둥과 이중 모임지붕, 그리고 나무 바닥이 아닌 기단으로 형성되어있다. 이 기단은 중심부로 갈수록 단이 낮아져 실내공간의 중심부에는 사각형의 홀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바닥의 형태는 완틸란의 내부공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준다. 완틸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각형의 내부 홀은 악기 연주, 반자르 대표자(Kelian Banjar)의 연설, 반자르 구성원들의 행사, 발리의 오랜 전통 놀이인 투계(鬪鷄) 등에 사용된다. 그리고 홀을 둘러싸고 있는 몇 개의 단은 위의 이벤트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둘러앉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러한 용도의 계단은 발리의 다른 건축물에서도 흔히 발견되는데, 그 예로 사원의 마당 앞의 문에 형성된 계단을 들 수 있다.



Tenganan Pegringsingan 마을의 Wantilan



Tenganan Pegringsingan 마을  
Wantilan의 내부공간

위 사진은 발리의 잘 보존된 원주민마을인 Tenganan Pegringsingan 마을의 완틸란으로, 전통적인 공공 건축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 건물은 큰 내부 공간과 높은 이중지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건축물이며 위치상으로도 매우 공적인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전술한 전통적 완틸란의 건축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공간이 반자르의 행사와 모임에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발레 반자르가 Wantilan의 형태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 행사와 공동작업(gotong royong)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발레 란땅(Bale Lantang) 즉 길이가 긴 건물의 형태로 공공건축이 지어져있다. 일반적으로 이 건물은 내부에 긴 목재 마루바닥이 있고, 반자르 구성원들은 이 마루바닥에 앉아 반자르 활동에 포함되는 여러 일을 수행한다. 발레 란땅 형태의 발레 반자르는 Penglipuran 마을의 공공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장방형의 마루바닥을 가진다.



Penglipuran 마을의 Bale Banjar

지역을 막론하고 전통 마을 건축은 재료와 건축 방법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를 지닌다. 그러므로 발리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건물을 보면서도 그 차이점을 인식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세부적인 건축적 특징을 비교해보면 각 건물들이 가지는 용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

으며, 이 글은 마을의 공공건축인 발레 반자르를 일반인들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든 현대화된 마을이든 발리의 마을은 강력한 반자르의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에서 볼 수 있는 반자르의 필수적인 공공건축물을 모든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리를 여행하며 길거리에서 발리의 문화가 반영된 건축물을 찾아내는 소소한 즐거움을 찾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 위촉장 수여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8월 15일, 영사동 부지 사용권 반환 추진위원(위원장: 전민식)6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련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인청년회, MAJU SATU LANGKAH



2018년 7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 회장 정제희는 두번째 MAJU SATU LANGKAH 행사를 인도네시아 노동부 (Kementerian Ketenagakerjaan RI)에서 인력배치 및 고용기회 확대 차관(Direktorat Jenderal Pembinaan Penempatan Tenaga Kerja dan Perluasan Kesempatan Kerja)인 Maruli Apul Hasoloan 와 외국인 근로자 통제 국장(Direktur Pengendalian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인 Roostiawati, 외국인 근로 허가 담당 IMTA 국장 (Direktur IMTA)인 Wisnu Pramono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김영미 노무관도 함께 하였으며, 주로 인도네시아 한국인 근로자들의 애로 사항과 현안들을 전달하고, 인도네시아 노동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온라인 체계를 구축하는 이유 및 목적
  - Konsisten dan Cepat, Tepat dan Tegas 경제성장 동력
  - 절차는 간소화 하되 모니터링(감독)은 더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가동
2. RPTKA 온라인화 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비자발급시 신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제고
3. 211A 211B는 근로비자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신 규정에 따라야 함)
4. 투자자는 투자금액에 따라 BKPM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ITAS를 진행하면 되고, 별도의 IMTA가

필요 없음. 업종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

5. VITAS/ITAS는 온라인으로 처리되므로 기한(6일) 준수 가능
6. 신 외국인고용규정 관련, 근로자들에 대한 인니어 학습에 대하여는 기업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며 개인의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님
7. 인턴(Magang) :
  - 아직 인도네시아 노동부에 관련 규정이 없으며,
  - 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이 커리큘럼이나 인턴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지 인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현재 노동부 내부 검토중
  - 업무와 관련하여 급여가 발생하는 즉시 근로자로 간주됨. 그러나 주택 및 식사 등 거주에 필요한 필수 요건은 제공 가능
8. 동일한 직종인데 2개 이상의 기업이나 기관에서 일할 경우, 노동허가를 중복하여 받지 않아도 되는 업종(직군) : 1) 이커머스. 2) Migas, 3) Pendidikan (Dosen) Tingkat Universitas, 노동부 웹 <http://tka-online.kemnaker.go.id/>에서 개방직 정보 검색 가능함.

\*이외 RPTKA, IMTA 및 기타 ITAS/VITAS관련하여 많은 설명을 들었으나 민감하고 세부적인 부분이 많아 자세히 기재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Maruli 차관은 앞으로도 한인청년회와 지속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서 현안문제나 기타 애로사항을 알려달라고 당부하였다. 저희 한인청년회에서는 Maruli 차관에게 명예 한인청년회원 인증패를 전달하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제공: 재인니 한인청년회)

# 인도네시아 회사법 (11)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 7.19.5. RUPS Luar Biasa(임시주주총회)

RUPS Tahunan(연례주주총회) 이외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 RUPS를 RUPS Luar Biasa라고 한다. 연례주주총회의 안건은 이사회의 경영 보고서 승인 및 신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승인으로 제한하며, 그 이외의 모든 안건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연례주주총회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주식회사법은 RUPS에 따라 안건을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RUPS의 결의사항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등기해야 하는 사항 및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예”를 들면 이익배당 결의같은 내부 사항)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필자는 전자의 의견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회사 내부 사항, 보고 의무가 없는 사항을 일부러 법무부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7.19.6. RUPS 소집

### 7.19.6.1. RUPS 소집권자

#### 7.19.6.1.1. 이사회

7.19.6.1.2. 전체 발행주식의 10(십)%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일)인 혹은 다수의 주주나 정관에서 소집권 기준을 10(십)%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일)인 혹은 다수의 주주는 이사회에게 RUPS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7.19.6.1.3. 감사회도 이사회에 RUPS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7.19.6.2. 주주 혹은 감사회는 RUPS 소집 요구는 반드시 안건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7.19.6.3. 이사회는 상술한 RUPS 소집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아무리 늦어도 15(십오)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할 의무가 있다.

7.19.6.4. 이사회가 상술한 15(십오)일 이내에 RUPS를 소집하지 않으면 주주는 감사회에 RUPS 소집을 재요구할 수 있다.

7.19.6.5. 감사회는 상술한 주주의 RUPS 소집 재요구서 접수일로부터 아무리 늦어도 15(십오)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할 의무가 있다.

7.19.6.6. 이사회 혹은 감사회가 상술한 15(십오)일 이내에 주주가 요구한 RUPS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는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장에게 안건을 기재하여 주주가 RUPS를 직접 소집할 수 있는 주주 RUPS 소집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7.19.6.7. 주주로부터 RUPS 소집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법원장은 신청인, 이사회 및/혹은 감사회의 의견을 청취 후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주주에게 RUPS 소집을 허가한다.

7.19.6.8. 관할 지방법원장은 RUPS의 형태(RUPS Tahunan 혹은 RUPS Luar Biasa), 신청자의 신청에 근거한 안건, RUPS 소집기간, 성원 정족수, 의결 정족수, 의장을 지명하여 주식회사법 혹은 정관에 의거하거나 혹은 의거하지 않고 주주에게 RUPS 소집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사회 및/혹은 감사회에게 주주가 소집하는 RUPS에 참석을 명할 수 있다.

7.19.6.9. 상술한 관할 지방법원장의 RUPS 소집 허가서는 확정판결문과 같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 혹은 항소를 불허한다.

7.19.6.10. 관할 지방법원장이 주주의 RUPS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7.19.6.11. RUPS 소집은 아무리 늦어도 RUPS 개최 14(십사)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RUPS 소집일과 개최일은 14(십사)일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식 계산 방법으로는 소집 기간이 16(십육)일이 된다.

“예” 주총 개최일이 2018년 9월 16일이면 늦어도 9월 1일 주총소집을 통보해야 한다.

7.19.6.12. RUPS 소집 방법은 반드시 등기서류로 해야 하며 일간지에 공고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혹시 주주 간에 이견 시 RUPS 소집은 일간지에 공고가 바람직하다.

7.19.6.13. 발행주식의 주주 100(백)%가 참석하고 안전에 대하여 참석 주주 전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전 소집 통보 없이 RUPS를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다.

#### 7.19.7. RUPS 개최 장소

7.19.7.1. 반드시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개최해야 한다.

7.19.7.2. 정관에 나타나 있는 회사의 법적 소재지(주식회사법상 시/군) 혹은 정관상에 기재된 주사업장이 있는 시/군 내

7.19.7.3. 상장회사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된 증권시장의 소재지에서 개최가 가능하다.

7.19.7.4. 특정 안전에 주주 100(백)% 참석에 100(백)% 찬성 시에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 어느 곳에서나 RUPS 개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결은 100(백)% 찬성 시에 만 가능하다.

#### 7.19.8. RUPS 개최 및 참석 방법

주주가 직접 신체적으로 참석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주주가 신체적으로 참석하지 않으나 참석하는 모든 주주가 서로 육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서로

청취할 수 있는 영상 매체, 비디오 매체 혹은 다른 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RUPS를 개최할 수도 있다.

#### 7.19.9. RUPS 성회 및 의결 정족수

7.19.9.1. RUPS의 정족수에 관하여 주식회사법 혹은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RUPS 개최 정족수/성회요건은 총 발행주식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7.19.9.2. 과반수 미달 시에는 제2차 RUPS 소집을 할 수 있으며 제2차 소집서에 제1차 RUPS를 소집했으나 과반수 미달로 성회를 하지 못했음을 밝혀야 한다.

7.19.9.3. 정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2차 소집 RUPS는 총 발행주식의 1/3(삼분지일) 이상 참석으로 성회한다.

7.19.9.4. 제2차 RUPS 소집도 성원미달로 성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정족수/성회요건을 정하여 제3차 RUPS 소집허가를 청원할 수 있다.

7.19.9.5. 제3차 RUPS 소집서에 제2차 RUPS가 성원미달로 성회하지 못한 것과 제3차 RUPS는 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서에 기재된 정족수/성원요건으로 RUPS가 개최됨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7.19.9.6. 제3차 RUPS 개최에 관한 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

7.19.9.7. 제2차 및 제3차 RUPS 소집은 늦어도 개최일 7(칠)일전에 해야 한다.

7.19.9.8. 제2차 및 제3차 RUPS는 전 RUPS 개최일로부터 아무리 빨라도 10(십)일 후 아무리 늦어도 21(이십일일)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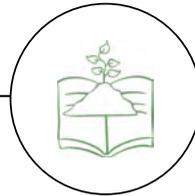
7.19.9.9. 주식회사법 혹은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참석 주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호에 계속)

# 옥죄지 않아야 창의성 나라가 펼쳐진다

흔히 선진국에서 자녀를 키운 부모들은 한국학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문제점을 꼬집는다. 예를 들면, 미국 교사들은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여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경청하는데 비해 한국 교사들은 “쓸데없는 질문으로 수업분위기를 흐리지 말라!”고 편견을 준다는 것이다. 그런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면 선진국은 교육 천국이요 한국은 교육 지옥인 것처럼 고착된다. 그러나 사례별로 냉철히 따져야 한다. 선진국에도 허점은 수두룩하고 한국 교육제도의 장점도 적잖다. 다만, 우리교육이 개인의 장점과 다양성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생산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거대한 공장의 기계부품처럼 획일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물론 놀고먹을 수는 없다.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왕이면 더욱 쓸모 있는 상품이나 예술품을 빚어 내려면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개인이 개성을 발휘하며 사람답게 살 때에야 창의성과 상상력이 극대화되어 인류를 위해 역설적으로 더욱 ‘생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글; 고승철(소설가)



## 자유로운 사고와 실험이 인정되는 사회

유태인 가정에서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가 “오늘 선생님께 뭘 질문했니?”라고 묻는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뭘 배웠니?”라 묻는 부모가 대다수이다. 질문은 자유로운 사고의 뿌리이다. 의문, 호기심, 궁금증 등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원동력이다.

필자는 중학생 때 수학을 싫어했다. 기계적인 계산을 반복해서 답을 내는 과정이 따분했기 때문이다. 하루는 수학 선생님께 “수학을 왜 배워야 하나요?”라고 물었다가 “건방진 녀석!”이라며 불같이 화를 내는 선생님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이유도 모르고 공부하자니 답답했고 수학에 대한 흥미는 더욱 떨어졌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후 미적분학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뉴턴과 라

이프니츠가 벌인 뜨거운 경쟁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수학은 세상의 비밀을 밝히는 훌륭한 수단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수학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

요즘 대학교육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파워포인트 화면을 띄우고 내용을 설명하는 교수의 강의방식이 대세를 이룬다. 칠판에 백묵으로 일필휘지 글씨를 쓰면서 가르치는 재래식 방식이 수강생에게 더 기억에 남는다는데.... 수식을 풀어야 하는 과목은 더욱 그렇다고 한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는 강의 내용을 암기해서 답안지에 재현하는 유형이 주를 이룬다. 교재를 보면서 답안을 작성하는 오픈 북 방식의 시험이 창의성을 더 자극할 것이다.



04.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창의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그는 <개미>, <뇌>, <제3인류> 등 인간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작품들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있다. ©연합콘텐츠 05. 프랑스의 한 학교에서 개최한 가장행렬 퍼레이드. 학생들이 일상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도록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프랑스 학교 교육의 방향은 학생의 흥미와 개성 존중에 맞춰져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어느 대기업이 한때 경영난에 빠졌을 때 그 원인으로 계열사 임원들의 과도한 골프 탐닉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룹 회장이 “골프 잘 치는 사장이 일도 잘 하더라”고 발언한 이후 대다수 임원들이 골프에 혼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사장이 등산광인 어느 회사에서는 걸핏 하면 등반대회를 벌이는데 체력이 약해 정상에 오르지 못하는 임직원은 무능한 사람으로 비친다. 취미, 회식에서 획일적인 행태가 드러나는 게 한국 기업의 조직문화이다. 직장상사는 건배사를 말할 때도 본인이 새로 만들어볼 시도는 하지 않고 “요즘 유행하는 건배사 뭐 없나?” 하고 부하에게 물어본다.

한국은 ‘문화 융성’을 이룩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을 맞았다. 경제난, 청년실업, 고령화 등 문제점이 한꺼번에 불거지고 있지만 이런 위기를 돌파하려 뛰다보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으리라.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특이한 처지이지만 이것도 한류의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추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창의력과 추진력으로 무장된 한국인들이 지구촌 무대 곳곳을 뛰면 한국은 진정한 문화선진국, 강국, 부국으로 부상하지 않겠는가.

(제공: 문화재 사랑)



# 하나 된 대~~한민국! 화이팅 코리아!



8.29 축구 한국: 베트남전

남북단일팀 카누 용선 금메달



8.24 볼링 여자 6인조 금메달



8.27 축구 한국: 우즈베크



8.30 여자 핸드볼 금메달

## 16강..8강..4강..그리고 결승전으로



(학생기자 JIS 한영진)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아시아에서 축구 강국으로 총 4번의 금메달, 3번의 은메달, 그리고 3번의 동메달로 남자 축구 출전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의 남자 축구 국가 대표팀은 총 3번의 경기를 통해 E조에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16강전에서 아시아에서 또 다른 축구 강국인 이란을 만난 한국은 방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경기는 순조롭게 한국이 2대0으로 대승을 거두었다. 다음으로 8강전에서 한국은 또 다른 축구 강국인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을 만나게 되었다. 우즈벡은 이번 대회 우승후보로서 한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8강 경기에는 아주 많은 관중들이 한국을 응원하러 왔다. 이는 16강전부터 반등보다는 비교적 가까운 찌까랑과 버카시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이다. 또 축구를 사랑하는 한국 국민들이 하나된 응원은 물론이고 몇몇 사람들은 와일드 카드로 이번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게 된 손흥민, 조현우, 황의조 선수를 보기 위해 왔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대회의 주역으로 뽑힌 선수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MVP상을 받으며 많은 활약을 하고 한국의 에이스 선수인 손흥민 선수는 군대 문제 때문에 주역이 되었다. 몇년에 한번씩 나오는 이런 선수는 군대에 가게 되면 한국 축구에 타격을 주는 부분이 없지 않기에 이런 선수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 선수가 면제를 받기 원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손흥민이 금메달을 목에 걸어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에도 쏠려있다. 우즈베키스탄전인 8강에서 대한민국은 고전을 치렀다. 처음 시작은 5분만에 황의조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날카롭고 정교한 패스를 이어받아 골을 넣었다. 하지만 우즈벡의 반격으로 점수는 다시 동점이 되었다. 골을 기다리는 교민들을 애타게 하였다. 해결사인 황의조 선수가 멋진 중거리 슈트로 대한민국을 앞서 나가게 하였다. 2대1로 전반전이 마치고 후반전이 시작됐다.

후반전부터 한국은 어려움을 겪었다. 우즈벡의 빠른 역습으로 한국은 2골을 10분안에 주며 뒤쳐졌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뛰었고 결국에는 75분에 황의조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다. 요즘 한국 사회의 문제인 악플과 비난은 이에 대조할 수 있다. 선수들도 열심히 뛰는데 비난을 받으며 뛰면 부담감이 더해진다. 이 경기와 같이 지고 있음에도 응원을 해야 한다. 욕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을 우리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믿어주어야 한다. 경기의 후반전이 마무리 되었고 경기는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몇번의 기회와 위협이 들어 다했다. 하지만 경기는 승부차기로 갈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민국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교민들은 끝까지 응원했다. 연장 후반이 끝나기 2분전에 페널티킥을 황의조 선수가 얻어냈다. 황희찬 선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로 이었다. 이 골로 경기장에서 기쁨의 함성은 몇분동안 끊이지 않았다. 8강전에서 힘들게 이긴 한국은 4강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8강전은 미리보는 결승전이나 다름이 없는 경기였다. 사람들은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을 응원했고 다같이 한 마음으로 우즈벡을 이겼다.

황의조 선수는 경기의 주요 선수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베트남과의 4강전은 8강전보다 덜 흥미로웠다는 평가가 많다. 떠오르는 에이스인 이승우 선수는 재치있게 2골을 넣었고 황의조 선수도 한 골을 4강전에서도 넣었다. 3대1로 베트남을 이긴 한국은 결승전에 진출했다. 한국은 결승전에서 일본과 맞붙게 된다. 일본이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다. 일본은 어린 선수들이 있기에 한국이 쉽게 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축구라는 경기는 모르는 것이다. 축구공은 둥글다고 하지 않던가-! 축구는 11명과 후보선수와 감독과 응원하는 팬들이 다같이 함께 하는 것이다.

(8월 27일, 작성)

## ‘공공외교’ 실천의 장

# ‘바탐(Batam) 한국문화원’에 도서 기증

<한국어 교재, 한국관련 도서 및 전통문화 영상부터 K-Pop 콘서트 영상까지>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대사 김창범)은 한국 문화원(원장 천영평)을 통해 지난 8월 3일(금) 리아우주 한국문화 소외지역인 바탐(Batam)시에 소재한 ‘바탐한인회(회장 공자영)’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바탐 한국문화원’을 방문하여 시설물을 돌아보고, 한인회 회장을 비롯 한국어 교사 및 태권도 사범과 함께 한국관련 도서 및 영상물 약 300점을 기증하였다.

‘바탐 한국문화원’은 한인회장의 사비로 운영 중이며, 바탐에 거주 중인 선교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한국어·태권도 등 문화 강의가 진행 중이다. 선교사로 파견나와 가족과 함께 바탐에 거주 중인 태권도 사범은 “태권도의 경우 약 70명이 수강 중이며, 그 수요가 해마다 늘어 최근 바탐 한국문화원 내 연습장에서 주변의 한 공간을 임대

하여 운영 중이나 장비가 매우 열악한 상태여서 수강생들의 기량 증진을 위한 연습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어 수업을 맡고 있는 최은혜 선생님은 “한국어 수업은 현지인 및 한인동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학습교재의 부족으로 다양한 한국 문화와 한국 바로 알리기에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이번에 기증받은 도서들로 다양하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도서 기증식은 인도네시아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불고 있는 자생적 한류 커뮤니티를 통한 한류의 열풍이 지속될 수 있고, 제대로 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한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 내 지방 한인회들과 연계하여 보다 폭넓은 향후 문화교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공: 한국문화원)



한국어 수업 교실



바탐한인회(회장 공자영)과 (오른쪽) 한국문화원(원장 천영평)

# 한인니문화연구원과 서울대 신흥지역연구사업단의 MOU체결



지난 8월 9일 인도네시아 한인니문화연구원(문화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신흥지역연구사업단(신흥지역연구사업단)은 상호 학술적, 문화적, 그리고 인적 교류를 약속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문화연구원은 1999년 사공경 원장이 주도했던 인도네시아 문화탐방활동에서 비롯되어 2011년 8월 한인니문화연구원으로 정식 개원하였다. 현재 문화연구원은 문화탐방, 열린강좌, 인터넷문학상, 바틱 전시회, 예술 공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쌍방향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 신흥지역연구사업단은 한국연구재단의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단으로서 한국과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가에 진출한 한인 기업과 로컬사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추후 이러한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흥지역연구사업단의 프로젝트는 한국기업

이 동남아에서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컬주민을 이해하고 로컬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한인기업의 성공적인 현지화 및 기업과 로컬사회의 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투자국가에 대한 깊은 문화적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문화연구에 대한 전문가 풀과 한인사회 및 현지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한인니문화연구원과 동남아 지역연구가로 구성된 신흥지역연구사업단의 MOU는 서로의 활동과 연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MOU를 체결하는 행사에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의 양영연 회장, 최인실 사무국장, 한인니문화연구원의 사공경 원장, 채인숙연구원, 서울대 신흥지역연구사업단의 이지혁 선임 연구원, 그리고 문화연구원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지혁박사와 엄은희 박사는 문화연구원의 객원연구원으로 선임되었다.

## 2018 임원잔조금 납부명단

기준: 2018.6.29 ~ 8.30

연번	성명 및 직책	회사명	금액		비고
			루피아	달러	
63	김우진 한인회 부회장	PT. SAMINDO ELECTRONICS		5,000	
64	황의상 한인회 부회장	PT. SEPULUH SUMBER ANUGERAH	72,000,000		
65	현상범 한인회 자문위원	PT. INAMEN JAYA		1,000	
66	강희중 한인회 자문위원	PT. SUNG TECHNOLOGY	14,400,000		
67	이진수 한인회 자문위원	PT. SUNGBO JAYA	14,400,000		
68	최정남 한인회 자문위원	PT. GLOBAL FIBERINDO	14,400,000		
69	이진호 한인회 자문위원	PT. JIN YOUNG	14,400,000		
70	고영철 한인회 이사	PT. SHIN KWANG WORLDINDO	13,500,000		
71	송판원 한인회 이사	PT. KORYE POLIMER	13,500,000		
72	안선근 한인회 이사	PT. UIN UNIVERSITY	13,500,000		
73	이지완 한인회 이사	PT. JIN YOUNG	14,400,000		
74	김문수 한인회 이사	PT. QUTY KARUNIA	14,400,000		
75	양시완 한인회 이사	PT. KISWIRE INDONESIA	14,400,000		
76	김경국 한인회 이사	PT. HANASTAR DAKARA	14,400,000		
	*무기명 납부		13,800,000		3월 15일, 우리은행
총 금액			2,172,902,000	48,000	

## 롬복 지진 피해 생금

기준 : 2018.8.16~현재

번호	성명	회사명	금액(IDR)
1	신동수		30,000,000
2		PT. YOUGLIM	5,000,000
3	NO NAME		200,000
4	안창섭	PT. PETRASAKTI MADYA	5,000,000
5	박용상		5,000,000
6		PT. KHARIS RAYA SATU	5,000,000
7	김주철	PT. STAR CAMTEX	10,000,000
8		PT. FNC INDONESIA	2,000,000
총 금액			62,200,000

## 법인외원 잔조금 납부

회사명	금액
한국세라믹인도네시아 대표 김성수	Rp 100,000,000,-

## 2018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생금 납부 명단

※ 기준: 납부일 순

번호	성명	금액(IDR)
83	이완주	300,000
84	한상식	300,000
85	최전	300,000
86	NO NAME	300,000
87	김민영	300,000
88	NO NAME	300,000
89	김성진	300,000
90	송재선	300,000
91	김우진	300,000
92	황의상	300,000
93	이진수	300,000
94	정사무엘	300,000
95	현상범	300,000
96	김문수	300,000
97	안주영	300,000

## “2018 아시안게임” 지원 후원금 (8월호에 이어)

18. 08. 06 ~ 30일까지 납입일 순

구분	후원인	직책	회사명	납부금액 (루피아)
1	류성춘	대표	PT. MIRAE ASSET	30,000,000
2	이영석	법인장	PT. TK INDUSTRIAL INDONESIA	100,000,000
3	최병우	자문위원	PT. ANEKA PANEL INDONESIA	30,000,000
4	남경훈	대표	PT. KOREA INVESTMENT & SECURITAS IND.	20,000,000
5	이호영	법인장	PT. KOEXIM MANDIRI FINANCE	30,000,000
6	임철진	행장	PT. BANK OKE INDONESIA	20,000,000
7	김재윤	대표	PT. KUNYOUNG INDONESIA JAYA	100,000,000
8	임덕진	대표	PT. MIWON INDONESIA	30,000,000
9	이종근	대표	PT. KODECO ENERGY	100,000,000

## “2018 아시안게임” 지원 후원용품 (8월호에 이어)

구분	내역	후원사
1	지도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한국문화원(KCC)
		재인도네시아 외식업협의회(AKRI)
		무궁화유통
		하나관광(HANA TOUR)
		KB INSURANCE INDONESIA
2	음료 & 빵 (8.15 걷기행사 등)	HOTEL GRAN MELIA
		PT. KBP(보안/경비)
3	응원복	LOTTE MART INDONESIA



한인  
회

한인문화연구원

인도네시아어 강좌개강



시간 (66시간)	화 - 목
9:30-12:30	2018년 9월 13일 ~ 12월 6일 *휴일 9월 25, 27일 & 11월 20일
강사: 아담 (Adam)	
회비	회원 Rp. 3,000,000
	비회원 Rp. 3,300,000
접수	이메일 ikcskr@gmail.com
	SMS / 카톡 083878347811
장소: 한인문화연구원 Korea Center Building, Gd. Perpustakaan Lt.1 Jl. Gatot Subroto Kav. 58(대사관과 메디스트라병원 사이)	

##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당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한인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쉐어)과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한인뉴스는 <소개합니다> 코너를 통해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의  
인사동정 및 새로 연 사업체를 무료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인뉴스 편집국 (Telp. 021-521-2515/

haninnewsinni@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정성껏 실어 드리겠습니다.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	8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58	7650 6040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웅)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 / 법인 / 인허가 / 비자 / 채용 / 부동산 / 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



##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Kataal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가을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Tel: (021) 4587 8833 Fax: (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형사 · 민사 · 세무 · 투자 · 국적

김종성(변호사/ 대표Partner): UI대 법대졸, UI대 법대 대학원졸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존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항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가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가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맷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마루노래방	027	2831 869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	-----	------

2018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박형동 회장/한바패 회장

채영애 감사

사공경 고문

강희중 자문

신돈철 자문

이수진 수석 부회장

허민경 사무국장/스트링 오케스트라

정방울 사무차장/한인무용단

김경애 전시 수석부회장/한지공예

이은수 전시부회장/미협

김혜정 전시부회장/헤리티지

정재익 전시부회장/서협

김영희 공연 수석부회장/아르떼 여성합창단

김일순 공연부회장/한바패

박의태 공연부회장/색소폰

박정욱 공연부회장/극동방송 합창단

손창진 공연부회장/아버지 앙상블

<17개 소속 단체장>

극동방송 합창단 단장: 신정일 0811 924 328

국악사랑 회장: 장방식 0811 902 003

루시 플라워 회장: 최정순 0811 834 026

문인협회 회장: 서미숙 0812 8178 050

미술협회 회장: 신돈철 0878 5480 4815

색소폰동호회 회장: 박의태 0811 876 547

서예협회장: 송판원 0816 1840 762

스트링오케스트라단장: 허민경 0812 1316 2064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채영애 0816 745 384

아버지앙상블단장: 변영극 0815 9101 898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안영수 0811 9005 639

월화차 회장: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채영애 0816 745 384

한국무용단 단장: 정방울 0811 1636 210

한바패 회장: 박형동 0811 149 586

한지공예 단장: 김경애 0815 1941 1756

헤리티지코리아섹션 대표: 김상태, 김혜정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8984 1000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0254-848 4111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씨티서울	515 0415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유미	720 7464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파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본가 (족자카르타)	027 4436 1301
치맥 (족자카르타)	027 2831 440

**ICHTHUS SCHOOL** PRIMARY | SECONDARY PRE UNIVERSITY  
 A Christian School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PEN HOUSE**  
 Ichthus West: Friday, 26 Oktober 2018  
 Ichthus South: Friday, 02 November 2018  
 For more information:  
 South Campus | T: +6221 7590 8820  
 West Campus | T: +6221 581 2228  
[www.ichthusschool.com](http://www.ichthusschool.com)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보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JAC Recruitment	315	9504
-----------------	-----	------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북공하숙(리보찌까랑)	0813	1415 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 게스트하우스	0858	1442 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보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쉴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에세드라아트스쿨(리브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발리 (지역번호 0361)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4980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넷서날라온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퓨터 0821-2222-6000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KOREAN SPORTS ASSOCIATION IN INDONESIA

http://www.ksai.or.kr

sports-ind@naver.com

구분	직책	성명	휴대폰
집행부	회장	강희중	0816-798-221
	사무총장	방진학	0811-198-282
	감사	배응식	0811-993-7651
	사무국장	최석일	0811-888-9609

협회	검도협회장	강희중	0816-798-221
	탁구협회장	곽봉규	0815-1410-4167
	볼링협회장	김송정	0816-716-293
	용무도협회장	김태화	0811-188-2938
	골프협회장	한현봉	0811-111-5800
	패러글라이딩회장	이동진	0811-393-3302
	태권도협회장	방진학	0811-198-282
	축구협회장	전용무	08111-009-252
	테니스협회장	정영규	0821-1032-624
	야구협회장	이창균	0815-1443-0000

# 지역한인회 주소록

현재 2018.1.23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부회장	편 성 호	0812-389-0694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	손 민 석	0858-5732-0669
2	반동한인회	회장	엄 정 호	0812-201-8309
		수석부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오 명 근	0812-115-1004
		사무 차장	남 상 일	0812-2400-0303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사무국장	정 규 철	0812-701-6090
		총무	이 상 구	0821-7356-8405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춘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회장	배 춘 식	0811-332-4001
		수석부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총장	김 태 현	0818-321-332
		수석총무	우 상 화	0817-500-1042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회장	김 소 웅	0811-278-8909
		사무총무	이 승 현	0811-978-028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배 석 기	0816-1844-165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문 창 윤	0822-2220-8123
		수석총무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땅그랑반뜰한인회	회장	오 세 명	0816-187-8582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	이 재 호	0811-444-190
		총무	한 정 곤	0811-419-200



#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 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21)521 2515
<b>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b>	<b>0812 1960 308</b>

## ■ 항공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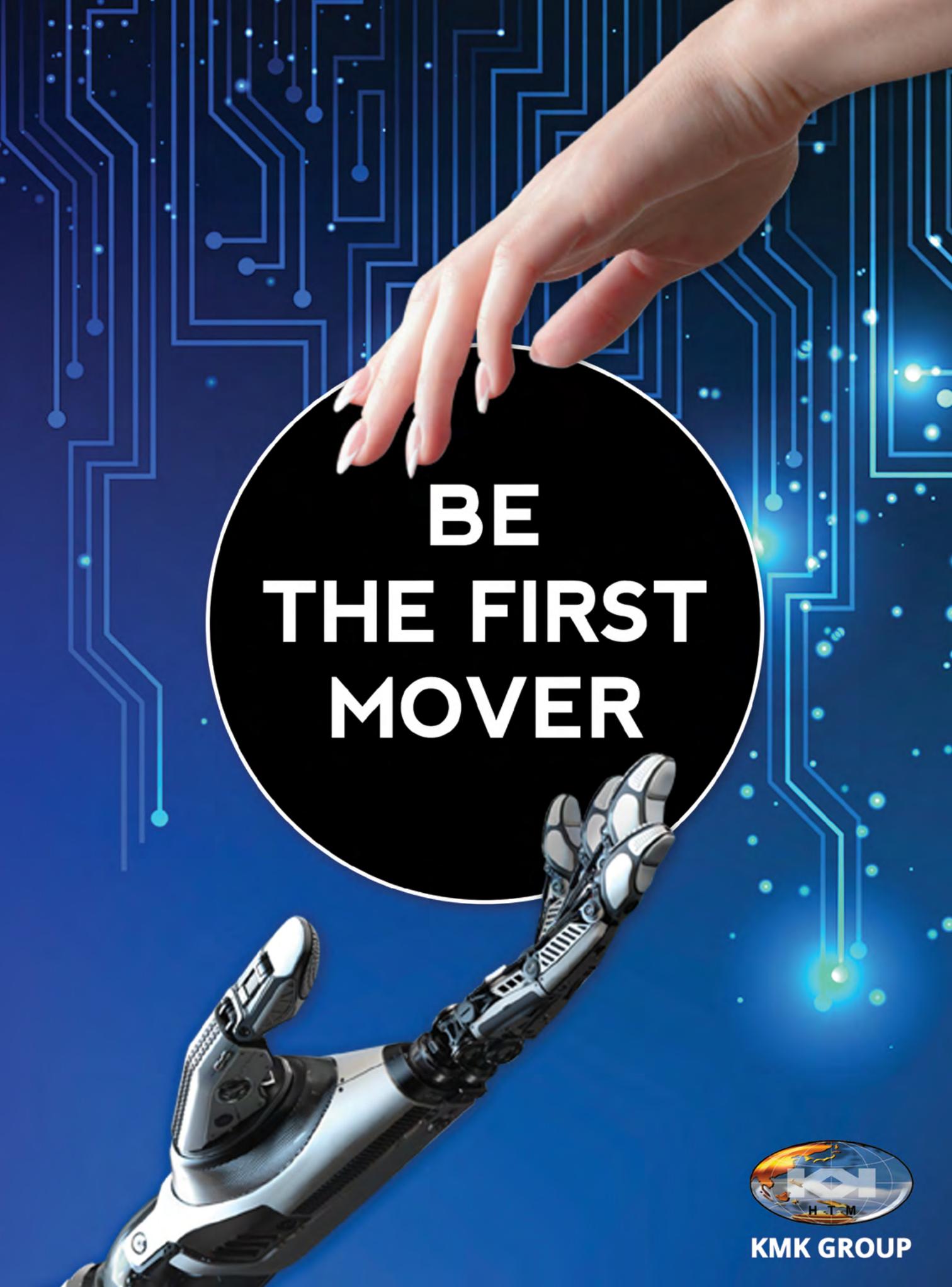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터미널3).....	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문의.....	021)57986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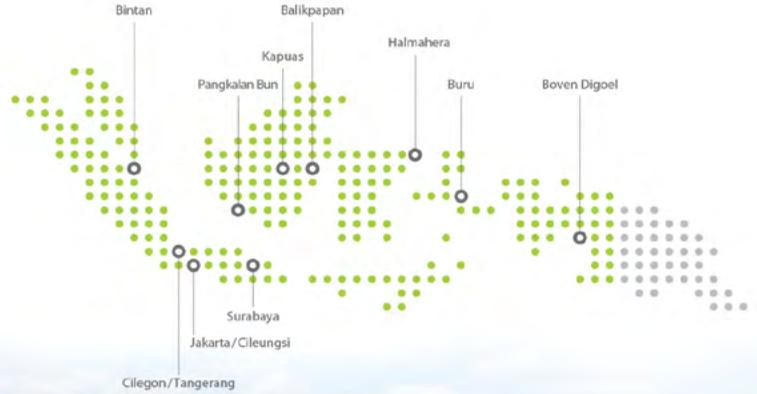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 KORINDO Plants the Green



##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펄프업,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